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청풍명월(淸風明月)
수상내역	우수상(재단이사장상)
작가	박지나, 박소연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영화, 애니메이션
소재	십대 성장 스토리(청주배경)
기획의도	청풍명월의 고장인 청주를 배경으로 하여, 보름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십대 소년, 소녀의 성장스토리를 전하고자 하였다.
이야기 소재 (Motive)	*보름달: 주인공 채운에게 주어진 15일이라는 시간은 초승달이 보름달로 되어가는 주기이자, 채운의 성장과정과 닮아 있다. 귀신들의 가마 터미널을 움직이는 장승연 합회의 상징이 보름달인 이유 또한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이 한 서린 우리 귀신들의 시간여행을 돕는 것에서 비롯된다.



:: 우수상 ::

재단이사장상

청풍명월



박지나 박소연

기획의도

청풍명월의 고장인 청주를 배경으로 하여, 보름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십대 소년, 소녀의 성장스토리를 전하고자 하였다.

작품소개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보름달: 주인공 채운에게 주어진 15일이라는 시간은 초승달이 보름달로 되어가는 주기이자, 채운의 성장과정과 닮아 있다. 귀신들의 가마 터미널을 움직이는 장승연 합회의 상징이 보름달인 이유 또한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이 한 서린 우리 귀신들의 시간여행을 돕는 것에서 비롯된다.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p>1. 곽채운 보름달처럼 꿈이 꼭 채워진다는 뜻의 이름 ‘곽채운’. 왕십리 달동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열여덟 살의 소녀이다. 반에서 2등을 할 만큼 똑똑한 학생이지만, 힘든 집안 사정과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얼굴밖에 모르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나간다. 1995년도의 청주에서 어머니를 찾아 용신, 갑돌과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당찬 성격을 갖고 있다. 청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와의 갈등도 풀게 됨으로써 곽 채운 보름달처럼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인물.</p> <p>2. 채용신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자만심에 빠진 소유자. 전국을 떠돌며 조선 최고의 미인을 그리고 다니다가 우연히 1995년도의 청주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채운, 갑돌과 만나 거만했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또한 꿈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귀신 주혁을 통해 초심의 마음을 갖게 된다. 갑돌, 채운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며 채운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인물.</p> <p>3. 갑돌 진돗개. 청주에 사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으며,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애뜻하여 과거로 무임승차하여 온 귀신 개. 채운과 용신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 뛰어난 후각으로 귀신들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일행을 방해하는 박쥐들을 찾아낸다.</p> <p>4. 할아버지 갈 곳이 없는 채운과 용신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해주는 자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소 의지할 자식이 없어 자신이 키우는 어린 강아지 갑돌에게 애정을 준다. 또한 채운과 용신을 자식처럼 아끼며 보살펴주는 따뜻한 인물.</p>

청풍명월(淸風明月)

#1. 버스 안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채운이 ‘청주행’ 티켓을 손에 쥐고 차창 밖을 바라본다. 교복 차림의 채운. 옆 좌석에는 채운의 책가방, 포장 된 국화 한 송이가 놓여있다. 그때 채운의 휴대폰이 울린다.

채운: (전화 받으며) 여보세요.

아빠: 어디냐.

채운: (무심하게) 알 거 없잖아요.

아빠: (한숨 쉬며) 날이 추워졌다. 얼른 들어와라.

채운, 대답 없이 전화 끊는다. 옆 좌석에 있는 국화꽃을 바라본다.

#2. 타이틀

청풍명월(淸風明月)

#3. 청주 묘지공원 입구

문 닫을 준비를 하는 직원. 채운,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니 6시 45분이다. 폐장하기 15분 전, 서둘러 뛰어가는 채운.

채운: (숨을 헐떡이며) 잠깐만요!

직원: 곧 폐장합니다.

채운: 10분이면 되요.

직원, 채운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채운, 직원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서둘러 묘지공원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해가 지고 있다.

#4. 목련원: 납골묘지

산 중턱을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납골묘지. 채운이 납골묘 옆에 통로로 만들어진 돌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며 엄마의 이름을 찾는다. 다, 여섯 개의 계단을 오른 채운, 맨 꼭대기에 도착한다. ‘김경아’가 적혀 있는 납골묘를 발견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는 채운. 가지고 온 국화 한 송이를 엄마의 납골묘 앞에 놓아둔다.

채운: 엄마, 나 왔어. (웃으며) 오늘 성적표 나왔는데, 2등 했어! 조금 더하면 일등도 할 수 있을 거 같아.

조용한 주위.

#5. 계단

채운, 자리에서 일어나 교복 치마를 털고 옆에 있는 돌계단에 가서 앉는다. 채운이 앉아 있는 계단의 오른쪽 맨 끝 옆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그 그늘 밑으로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반짝인다.

묘지공원의 전경을 바라보는 채운. 몇 기의 무덤 앞에 꽃다발과 종이컵이 놓여 있다.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 채운, 고개를 돌리다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 밑에서 장승 모양의 석상을 발견한다.

채운: (눈을 크게 뜨며) 어? 이게 뭐지? (자리에서 일어나 장승을 자세히 살펴본다)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장승의 이마에 새겨진 동그란 무늬가 반짝인다.

채운: 어라? (장승의 이마를 검지로 두, 세 번 건드리다가 엄지로 문지른다)

장승의 이마에 있는 동그란 무늬가 다시 반짝인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채운, 멍하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는다.

곧이어 시끌시끌해지는 주변. 채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다.

등을 하나씩 손에 들고 계단 뒤 산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강아지 몇 마리도 그 뒤를 졸졸 따른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운,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산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엄마를 닮은 긴 생머리의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눈을 비비는 채운. 긴 생머리의 여자가 채운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채운이 그 쪽을 향해 달린다.

#6. 산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뛰어가려 애쓰는 채운. 험땀대며 여자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주위. 소나무가 뻗뻗하게 심겨져 있다.

이 때 부채를 접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부채를 들고 있는 가마 귀터 관리자를 바라본다. 환한 달빛이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그를 비춘다. 발끝을 세워 그를 보는 채운. 그의 옆에 ‘가마 귀터’라고 쓰인 나무 팻말이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 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는 그, 머리 위에 쓴 갓 중심에 보름달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가마 귀터 관리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가마를 이용해주시니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저번 같은 일을 또 겪게 된다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귀신1: (작은 목소리로) 저번 같은 일?

귀신2: 저번에 여행을 마친 한 놈이 돌아가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여기 가마가 부러졌었거든.

가마 귀터 관리자: 저희 가마가 튼튼한 것은 세상 모든 귀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분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채운: (혼잣말로) 귀신?

채운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자 초점 없는 눈으로 크게 웃고 있는 귀신들이 보인다.

가마 귀터 관리자: (눈을 가늘게 뜨며) 자, 갖고 오신 물건과 티켓은 저기 저 놈한테 가서 교환하시죠.

가마 귀터 관리자가 티켓을 쥐고 있는 가마꾼을 가리킨다.

가마 귀터 관리자: (입꼬리를 올리며) 15일. 15일입니다.

귀신들이 가마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티켓을 교환한다. 귀신들의 명패를 보고 티켓을 건네는 가마꾼들. 다들 이마에 비단으로 된 빨간 띠를 두르고 있다. 띠의 가운데에 보름달이 그려져 있다. 귀신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채운, 당황한 표정.

채운: (혼잣말로) 이제 어떡하지?

다시 주위를 둘러보는 채운, 수많은 귀신들 틈에서 긴 생머리의 여자를 찾는다.

이 때 가마꾼에게 티켓을 내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려 줄 서 있는 귀신들을 발견한다. 그 쪽으로 달려가는 채운.

#7. 대합실

4~5명쯤 들어갈 수 있는 큰 가마가 대합실 밖에 줄줄이 있고, 맨 앞에서 가마꾼들이 귀신들에게 티켓을 받고 그들을 입장시키고 있다. 가마의 입구에는 각 지방의 이름과 년도가 쓰인 나무 팻말이 붙어 있다. 귀신들을 밀쳐내고 앞으로 가려는 채운. 이 때 험상궂게 생긴 가마꾼 하나가 채운에게 다가온다.

가마꾼: (인상을 쓰며) 어이, 차례는 지켜야지?

채운: (움찔거리며) 네, 네.

황급히 대합실 뒤로 도망가는 채운.

#8. 대합실 뒤 풀숲

풀숲 사이에 숨어 대합실을 지켜보는 채운, 이 때 누군가가 채운을 부른다.

갑돌: 이봐.

주위를 돌아보는 채운.

갑돌: 밀에.

채운의 발밑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다.

채운: (깜짝 놀라며 넘어진다) 강, 강아지가 말을 하다니!

갑돌: 그야 난 귀신이니까. (넘어진 채운의 주위를 빙빙 돌며) 보아하니, 이 곳 귀신은 아닌데 말이야.

채운: (혼잣말로) 귀, 귀신?

갑돌: 저 가마 탈 티켓은 있어?

채운: 티켓? 아니……. (갑돌을 경계하며) 넌?

갑돌: 없어. 무임승차라는 게 왜 있겠어. (주위를 살피며) 넌 어느 가마를 타고 싶은데?

채운: (귀신들이 줄 서 있는 곳을 살피다가) 저기 저 검은색 긴 생머리 여자가 타는 가마를 탈거야.

갑돌: 저 줄이라면……. 나와 같이 가겠군.

끝에 자리한 가마에 귀신들이 모두 타고 가마꾼이 신호를 내리자 가마의 입구가 닫힌다. 땅 속에서 거대한 뿌리모양을 한 네 개의 다리가 나오고 가마가 일어선다. 줄지어 옆에 있는 가마들이 똑같이 일어선다. 중간에 있는 가마가 일어서기 위해 땅이 움직이고 있다. 갑돌과 채운, 빠르게 뛰어 입구가 닫히기 직전의 가마 속에 들어간다. 가마 안에 앉아 있는 귀신들이 깜짝 놀란다. 황급히 주위를 살피는 채운, 긴 생머리 여자 귀신을 찾지만 가마 안에 없다. 주저앉는 채운. 곧이어 가마가 휘청 이다가 중심을 잡는다. 보름달 가운데를 통해 들어가고 사라지는 가마.

#9. 1995년도 청주의 우암산

가마, 산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같은 가마에 탔던 귀신들이 하나 둘 내리고 갑돌과 채운 뒤따라 내린다. 귀신들 다 흩어지고, 가마가 보름달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숨을 내뿜는 채운.

채운: 여기가 어디지?

갑돌: (뒷짐 지고) 어디긴 어디야. 청주의 명산, 우암산이지.

채운: (놀라며) 우암산? 맞다, 엄마는 어디 있지?

갑돌: (뒷짐 지고 두발로 걸으며) 아직 사태파악이 안 되었나 본데 지금은 1995년도야.

채운: (큰소리로) 뭐?

갑돌: (당황하며) 조용히 해! 장승들에게 들키면 우린 큰일 나.

채운: 무슨 말이야, 지금이 1995년도라니? 그렇다면…….

용신: (목소리만) 거기 누구냐?

갑돌: (깜짝 놀라) 장승이 벌써 우릴 찾았나봐! 숨어!

채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 갑돌과 근처 큰 바위 뒤에 숨는다. 채운, 갑돌 고개를 뺨뺨 들어본다. 그때 용신 나무사이를 빠져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용신 한복을 입고 있다.

용신: (혼잣말로)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갑돌: (조용하게) 어? 장승이 아닌데?

채운: (용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뭐지?

용신, 그때 고개를 획 돌아봐 갑돌과 채운을 발견한다. 놀란 갑돌과 채운, 고개를 숙여 바위에 숨는다. 채운과 갑돌, 천천히 고개를 든다. 바위 앞으로 다가온 용신과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는 채운.

갑돌: (안도의 한숨쉬며) 휴, 다행이다.

용신: (놀라며) 개가 말을 하다니!

갑돌: 자꾸 나보고 강아지, 개 하는데 나도 이름이 있어. 갑돌이라고!

용신, 넘어져 있는 채운을 바라본다. 교복 차림의 채운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용신.

채운, 엉덩이에 묻은 흙을 툇툇 털며 일어난다.

갑돌: (두발로 일어나 뒷집 지며) 뭐하는 놈이야, 이 자식은?

용신: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내가 아직 취해 있단 말인가.

갑돌: (두발로 걸으며) 난리 났네. 이봐, 여긴 1995년이고 이곳은 청주야.

용신: (놀라며) 1995년?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

갑돌: 조용히 하고 따라오거나 해.

비탈길을 내려가는 갑돌. 채운과 용신 그 뒤를 따른다.

#10. 흙 길

채운, 앞서가는 갑돌을 놓칠까봐 발걸음을 빨리한다. 용신, 아직도 어안이 병병한 상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따라간다.

용신: (채운 옆에 붙어서) 진짜 여기가 1995년도가 맞느냐?

채운: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청주 1995’라고 쓰여 있는 가마를 타고 왔거든요.

갑돌: (여전히 앞서가며) 그게 바로 1995년도의 청주로 간다는 뜻이지.

채운: (한숨 쉬며) 그래서 이제 어떻게해야하지?

갑돌: 보름달이 뜨는 날 돌아갈 수 있어.

채운: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면…….

갑돌: 오늘부터 우리에게 15일이 있는 거지.

용신: 나도 그럼 그 날 갈 수 있단 말이나.

갑돌,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 채운과 용신을 본다. 채운과 용신도 걸음을 멈추고 갑돌을 쳐다본다.

갑돌: 인간이 둘이나 가마를 타다니. 가마 귀터도 참 말세구만, 말세야.

다시 앞서 걸어가는 갑돌. 채운, 가우똥거리다 이내 다시 갑돌을 따라간다.

용신: 이보게. 어디로 가는 건가?

갑돌: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용신을 쫓아보며) 그리고 내 이름은 갑돌이라고!

용신: 어허,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뉘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는가! (점잖은 목소리로 거만하게) 나는 채 씨 가문 19대 손, 조선 최고의 화가 채용신이란다!

갑돌: (용신의 말 무시하고) 이거 하나 명심해. 귀신들만이 탈 수 있는 가마에 당 신들, 인간들이 가마를 탔단 말이지. 분명 장승 연합회에서 너희들을 잡으러 올 거야. 잡혀 가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15일 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게 좋을걸!

채운: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돌을 바라보며) 너도 가마를 타면 안 되는 거였잖아.

갑돌: 뭐?

채운: 무임승차!

갑돌, 당황하여 주춤하지만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간다.

채운: (용신의 도포를 살짝 당기며) 그 쪽은 어떻게 가마를 타게 된 거예요?

용신: (채운의 손을 뿌리치며) 어허! 여자가 어디 감히!

갑돌: 여긴 1995년이라고. 몇 번을 말해? 여자고 남자고 가르는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용신: (헛기침 하며) 흠, 흠! 난 전국의 빼어난 미인들을 찾아 초상을 그리고 있었 지.

채운: 화가예요?

용신: (부채를 펴 부채질을 하며) 이 땅 조선 최고의 화백이지!

#11 <회상> 1895년 청주, 어느 양반 댁 앞

붓통과 종이를 들고 있는 용신.

용신: (문을 두드리며) 청주 최고의 미인이 있다 하여 왔소이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인들에 의해 내동댕이쳐지는 용신

#12 <회상> 밤, 주막

홀로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용신. 많이 취해있는 모습. 비틀비틀하며 우암산 속으로 걸어간다.

#13 <회상> 우암산 속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용신, 우연히 장승과 마주친다.

용신: (장승의 머리를 만지며) 어? 이것이 말을 하는구나? 딸꾹!

고개를 든 용신, 눈앞에 가마 한 대가 있다. 현재로 돌아가려는 귀신들이 줄을 서서 가마를 타고 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용신, 가마꾼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가마에 몸을 싣는다. 가마가 움직이고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용신이 가마 안에서 휘청거리다가 가마 입구 쪽으로 몸이 기운다. 가마꾼들 용신을 잡으려고 하나 놓치고, 용신은 우암산에 떨어진다.

#14. 청주, 1995년, 흙 길.

갑돌: (어이없이 웃으며) 허, 귀터로 돌아가는 가마를 타다니! 그 가마꾼들은 지금쯤 많이 혼나고 있겠는데?

‘가로수 마을 1110번 길’이 쓰인 표지판이 보이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셋.

마을 입구의 풀숲 사이에 숨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물체. 머리에 족두리를 하고 새색시 복장을 하고 있다.

#15. 할아버지 집 앞마당

어느 허름한 집. 마당에 갑들의 어린 시절로 보이는 강아지가 자고 있다.

갑들: (눈물 글썽이며) 드디어 왔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어린 갑들, 눈을 뜨고 셋을 발견한다.

갑들: (어린 갑들에게 다가가) 갑돌아 나야! 네가 나중에 크면 나처럼 된다고!

어린 갑들, 인상을 쓰더니 깨깨깨깁 짓는다. 당황하는 셋. 그 때 방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구부정한 허리를 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갑들: (할아버지 보더니 눈물을 보이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앞으로 뛰어가는 갑들. 귀신의 형체라 할아버지 인식하지 못하고 채운과 용신에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잠이 덜 깬 표정으로) 이 밤에 누구요?

채운, 용신 서로 눈치만 보고 갑들을 쳐다본다. 갑들은 계속 할아버지만 바라보며 꼬리를 치고, 눈물을 흘린다.

채운: (당황하며 조용히) 갑돌아!

할아버지: (눈을 비비며 용신을 본다) 이쪽은 어느 가문의 자제이기에 이렇게 한복까지 차려입었나?

용신: (당황하며) 저, 저는 …….

그 때 용신의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난다. 용신을 뻔히 보는 할아버지.

#16. 대청마루

귀뚜라미 우는소리와 개구리 소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 보름달이 높게 떠있다. 어린 갑들은 다시 잠에 들었고, 갑들은 할아버지 옆에서 떠날 줄 모른다. 앉아있는 채운과 용신 앞에 쥔 감자를 갖다 주는 할아버지.

용신: (눈치 보면서) 내 어른이 먼저 드시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웃으며) 나는 생각 없으니 먹어라.

용신: (점잖게) 잘 먹겠습니다. (쥔 감자를 들더니 뜨거워서 당황하며 허겁지겁 입 에 넣는다.) 앗, 뜨거!

그 모습을 본 채운, 웃으며 조심히 감자를 들어 먹는다. 갑들 여전히 할아버지 옆에 붙어있다.

할아버지: 그래. 너희는 어찌다가 이 밤에 여기까지 왔느냐?

채운: (먹던 감자 내려놓으며) 아, 저희가 길을 잃어서요.

할아버지: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인데?

채운: 실은 저희가 여행 중인데, 돈도 다 떨어지고 갈 곳이 없어요. 염치없지만 당 분간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용신, 둘의 대화 들리지도 않는지 계속 감자만 먹고 있다.

할아버지: 흠…… 알았다. (채운을 바라보며) 그래, 너 이름은 뭐니?

채운: 곽채운이요. 열여덟 살이고요.

할아버지: (용신 보며) 그 쪽은?

용신: (먹는 것을 멈추고 입에 감자가 잔뜩 묻어서) 아, 저는 열여덟, 채용신이라고 합니다.

채운: 너도 열여덟 살이었어?

용신: (채운의 말을 무시하며) 흠, 흠! (감자를 다시 집어 들며) 이것 참 맛있구나.

할아버지: (용신을 바라보며) 아무쪼록 다 먹고 너는 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채운이 너는 저 쪽 건넌방 가서 자도록 하거라.

채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할아버지: (뒷집 지고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 일손이 필요할 것도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채운: (웃으며) 네.

용신: (머뭇거리다가) 고맙습니다, 어르신.

갑돌, 할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간다.

#17. 채운의 방

어두운 방에 누워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채운. 옆으로 돌아누워 아까 봤던 엄마의 형상을 다시 회상한다.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진다. 별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펜던트를 열자 들어있는 채운의 가족사진. 어린 채운과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다.

채운: (혼잣말로) 지금이 95년도 10월이면 곧 엄마가…….

밤 깊어간다.

#18. 대청마루,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용신과 채운에게 일 바지와 허름한 티셔츠, 호미를 준다.

용신: (궁금한 듯)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허허, 옷을 갈아입고 나오너라.

용신: (한숨 쉬며 조용히) 정말 1995년도의 조선은 막무가내이구나.

할아버지: (못 듣고) 뭐라고?

용신: 아, 아닙니다.

옷 갈아입고 나온 채운과 용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는다.

갑돌: (둘을 보며) 뭐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기다리는데!

할아버지: 옷 다 갈아입었으면 여기 호미 들고 따라와.

채운: 네!

#19. 하우스

네 줄의 고랑 위로 검은색 비닐이 덮여 있다.

용신: (놀라며) 지금 이걸 저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자리 잡으며)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따라 하거라. 사이 좋게 두 줄 두 줄씩.

채운: (따라 앉으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 (호미로 검은 비닐을 뜯으며) 여기다가 이 고추씨앗을 심을 거야. (능숙하게 비닐을 뜯고 흙을 파 씨앗을 심는다.)

채운: (비닐을 뜯으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20cm정도 간격을 두고 뜯어야 한단다.

채운과 할아버지가 씨앗을 심는 동안 용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있다.

갑돌: (용신 옆에 서서) 넌 뭐하는 거야?

용신: (갑돌에게) 난 이런 것 할 수 없다!

새색시 귀신, 수줍은 표정으로 근처 나무 뒤에 서서 용신을 지켜보고 있다.

할아버지: (용신의 말을 듣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모르느냐?

채운: (땀 닦으며) 그러지 말고 와서 얼른 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갑돌: (용신 밀며) 얼른 안하고 뭐해!

용신, 배고픈 듯 자신의 배를 몇 번 쓰다듬다가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채운 옆으로 가서 앉는다. 그렇게 받을 가꾸는 채운과 용신. 할아버지, 그 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가로수가 흔들린다. 동네 주민들 지나가며 인사한다.

주민1: 할아버지! 애네들은 누구여?

할아버지: (수건으로 땀 닦으며) 내 손자하고 손녀!

주민2: 아이고 예쁘네.

주민들 지나가고 할아버지, 용신과 채운 보며 미소 짓는다.

용신: (땀 닦으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채운: (웃으며) 재밌지 않아?

용신: (놀라서) 뭐라?

채운: 내가 원래 살던 곳에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공부만 했을걸.

채운, 무릎을 꿇고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 용신, 허겁지겁 채운을 따라서 겨우 다 끝낸다.

용신: (일어나며) 나도 다했다.

채운, 호미 들고 밭에서 나와 할아버지에게 간다. 용신 뒤따라간다.

할아버지: 다 했어?

채운: (웃으며) 네!

할아버지: 그럼 저 뒷산에 가서 밤 좀 따오너라. 뜨끈뜨끈하게 구워서 먹자꾸나.

용신: (신난 목소리로) 밤? (헛기침하며) 흠, 나는 쉬고 있을 테니 채운이 너 갔다 오너라.

할아버지: 허허, 같이 갔다 오너라. 일을 해야 먹지!

용신, 못마땅한 표정이나 또 어쩔 수 없이 채운을 따라 같이 산에 오른다.

#20. 뒷산

산에 올라가는 채운, 용신.

용신: (투덜거리며) 정말 이 곳은 이해할 수 없구나. 상놈이 양반에게 일을 시키질 않나 감히 여자가 남자에게 반말을 하질 않나, 세상 참 말세로구나!

채운: (용신 팔 잡아끌며) 빨리 올라오거나 해. (밤나무 발견하고) 어? 밤나무 저기있다.

용신: (채운에게 끌려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 잠깐만.

채운: 왜?

용신: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제 감자를 많이 먹었나, 배가…….

채운: 뭐?

용신: (말 더듬으며) 변…… 변소가 어디 있느냐?

채운: (웃음 터져서) 뭐? 화장실은 저기 밑에 있지.

용신: (식은땀 흘리며) 내, 내려가자꾸나.

채운: 급해 보이는데? (주위를 살피다가 풀숲을 가리키며) 저기 가서 해결하고 와.

용신: (체념한 듯) 내 저기 가서 용변을 놓고 올 테니 너는 여기 있거라. 절대로 쳐다 봐선 안 된다.

채운: 알았으니까 빨리 갔다 와.

배변 볼 곳을 찾는 용신. 바지를 벗고 앉는 순간 새색시 귀신이 용신의 앞에 나타난다. 용신, 놀라서 몸을 가리고 뒤로 넘어진다.

새색시 귀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연지끈지가 붉게 찍혀 있다.

새색시 귀신: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가리며) 서방님.

용신: 으악!

채운, 용신을 기다리며 밤을 따다가 용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풀숲으로 달려간다. 새색시 귀신을 발견하고 용신에게 뛰어가는 채운.

채운: 무슨 일이야!

용신: (당황하며) 귀, 귀신!

채운, 용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자신의 뒤에 세운다. 새색시 귀신을 경계하는 채운. 겁먹은 표정의 용신, 채운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을 보고 당황한다.

새색시 귀신: (울먹이며) 흑, 서방님.

눈물을 흘리는 새색시 귀신, 채운을 잠시 췌려보다가 사라진다.

채운: (뒤로 돌아 용신을 살피며) 괜찮아?

용신: (얼굴이 붉어져서) 어, 어. 괜찮다.

채운: (혼잣말로)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인가?

#21. 밤나무 앞

채운, 주위를 둘러보고 긴 나무막대를 주워와 용신에게 건넨다.

채운: 자, 이거 받아.

용신: (당황하며) 이,이걸 왜 나에게 주는 것이냐?

채운: 내 키로는 저 높이 있는 밤을 딸 수 없어.

용신: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채운: 나도 아까 처음 해 본거야!

용신, 나무 막대를 들고 망설인다. 이를 한심하게 보는 채운.

용신: 아, 알았다!

용신, 막대로 밤을 따기 시작한다.

#22. 할아버지 집 대청마루

할아버지: (구운 밤을 반으로 잘라건네며) 자, 여기 있다.

채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용신: (짐작은 척 하며)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뿌듯해 하며) 오늘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먹거라.

갑돌: (할아버지 몰래 집은 밤을 떨어뜨리고 발을 비비며) 앓, 뜨거워!

채운과 용신, 밤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다. 그 때 대청마루에 있는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라는 노래가 나온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있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 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더 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 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더 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채운: (혼잣말로) 노래 좋다.

초승달이 떠 있는 밤하늘.

#23. 채운의 방

자고 있는 채운,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동그랗게 웅크린다.

#24. 할아버지의 방

누워 있는 할아버지 머리맡에서 갑돌이(귀신)가 자고 있다.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는 용신, 상투 주변 머리카락을 긁적이다.

#25. 밤하늘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초승달 주위에 덮여있던 검은 구름이 서서히 걷힌다. 바람이 세게 불고 나뭇잎이 휘날린다. 점점 밝아지는 초승달. 달빛이 여러 개의 빛줄기로 나뉜다. 환한 달의 중심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새(솿대)가 솟아올라 깊은 산 속으로 날아간다.

#26. 2011년 청주 묘지공원, 가마 귀터

동그란 나이테 원탁 앞에 여러 지역의 장승들이 앉아 있다. 가마에서 내려 의자에 앉는 장승, 가마꾼들과 이야기 중인 장승이 있다.

원탁의 중앙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청주 명월사 장승(이하 의장). 그의 옆으로 나무새가 날아온다. 의장의 긴 수염을 부리로 당긴 후 나뭇잎을 건네는 새. 눈을 뜬 의장이 잎사귀 위에 쓰인 글을 천천히 읽는다.

의장: (조금 큰 목소리로) 모두 모이셨으면, 장승 연합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때 나주 불화사 석장승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호들갑을 떠다. 험상궂은 듯 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얼굴.

나주 불화사 석장승: (다급한 목소리로) 의장어른,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마에 인간을 태우다니요!

더욱 소란스러워지는 회의장.

코 부분이 떨어져 나간 대구 금은사 석장승이 장승들 사이에 있는 가마꾼 한 명에게 눈짓을 준다. 잠시 후, 다리를 절뚝이는 노인 한 명을 금은사 석장승 옆으로 데려온다. 노인, 화가 난 표정.

금은사 석장승: (청주 장승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이 분이 가마를 타지 못한 손님입니다.

불화사 석장승: 하,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키가 가장 크고 덩치가 큰 강원도 성불사 석장승이 크게 헛기침을 한다. 조선시대 무관이 쓰던 전립 모양의 병거지를 고쳐 쓰는 장승.

성불사 석장승: (동굴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어디, 의장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모든 장승의 시선이 의장에게 집중한다.

의장: 맞습니다. 인간이 우리 세계에 들어왔어요.

장승1: 대체 가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승2: 어떻게 그럴 수가!

장승3: 어서 그 놈들을 잡아들입시다!

의장이 긴 나무막대를 꺼내 원탁을 두들긴다. 잠시 조용해지는 회의장.

돌하르방: (눈을 굴리며) 녀석들을 하루빨리 잡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엄미리 목장승: 어허, 이럴 때일수록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마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움직일 수 있어요. 모르십니까?

불화사 석장승: 허나, 이런 경우에는 가마를 무리해서라도 움직여야합니다. 녀석들이 보름 동안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닐지 어떻게 압니까?

돌하르방: (몸에 뚫린 구멍이 숨을 쉬듯 움직이며)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가 인간에게 노출되는 것 또한 금기인데, 감히 인간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다니요!

불화사 석장승: 저 노인이 타지 못한 가마의 다리가 이상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분명, 그 인간의 짓일 것입니다.

금은사 석장승: 의장님. 어찌 해야 할까요.

의장: ……(눈을 지그시 감으며) 우선, 그들을 찾으시다.

맘에 들지 않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장승들. 그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는 청주 흑암사 석장승, 의장을 살며시 노려본다.

#27 청주 할아버지의 초가집. 낮.

햇볕이 조금 뜨거운 대낮. 채운, 낮을 들고 지친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온다. 그 뒤를 이어 지게를 메고 들어오는 용신. 갑돌, 혀를 내밀고 지친 표정으로 뒤따라 걸어 들어온다. 모두들 마루에 벌렁 눕는다.

할아버지: (안채에서 방문을 열고 드러누운 그들을 바라보며) 허허, 그깟 잡초 좀 뽑았다고 지쳤느냐?

채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으, 힘들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채운과 용신을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신문을 다시 읽는다.

할아버지: (혼잣말로) 가을이구나, 완전히 가을이야.

지쳐서 눈을 감고 있던 채운이 눈을 크게 뜬다. 봄바람에 마당 앞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린다. 초가집 전경이 보이며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 MR로 흘러나온다.

#28. 채운의 방. 깊은 밤.

자고 있는 채운의 방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는 갑돌.

갑돌: 이봐! 큰일 났어! 일어나. 얼른 여길 빠져나가야해.

채운: (몸을 뒤척이며 잠에 빠져있다) 으음…….

갑돌: 멍! 가마꾼들이 온 것 같다고!

채운: (눈을 번쩍 뜨며) 뭐?

#29. 할아버지의 방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채운과 갑돌.

채운, 할아버지 곁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용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다. 채운의 손을 뿌리치고 코를 고는 용신. 갑돌 용신의 귀를 살짝 문다.

용신: 으악!

갑돌: (용신의 입을 막으며) 췌! 조용히 하고 어서 나와.

#30. 산 속

채운과 용신, 갑돌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셋의 발소리만 들리는 상황.

갑돌: (걸음을 멈추며) 잠깐!

채운, 용신 걸음을 멈추고 갑돌을 바라본다.

셋이 걸음을 멈춘 곳 앞에 서 있는 작은 석장승, 채운이 묘지공원에서 보았던 석장승과 똑같은 모습. 이 때, 이마의 동그란 무늬가 반짝인다. 그리고 곧 어두운 풀숲 속에서 하나 둘 가마꾼들이 등장하여 셋의 주위를 에워싼다. 불화사 석장승이 풀숲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걸어간다.

불화사 석장승: 역시, 청주였군.

갑돌, 가마꾼들을 향해 으르렁거린다.

불화사 석장승: (가마꾼들 중 한 명에게) 어서 관리자에게 가마 한 대가 필요하다고 전하시게나.

가마꾼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채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아, 아직 15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저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불화사 석장승: (채운의 바로 앞까지 빠르게 다가오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 때, 금은사 석장승이 그들의 곁으로 다가온다.

금은사 석장승: 불장승이 먼저 와 계실 줄 알았소. 가마가 비상시에 움직이려면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모르오?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의장이 등장한다. 눈을 감고 하품을 하는 의장, 얼굴의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움직인다.

의장: (눈을 번쩍 떠 채운과 용신, 갑돌을 바라보며) 강아지 한 마리도 있었군!

불화사 석장승: (안타깝고 답답한 목소리로) 의장님. 어서 가마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의장, 불화사 석장승의 말을 무시하며 채운을 주시한다.

채운: 멋대로 가마를 탄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찾아야 해요.

의장: 인간이 우리 세계를 알아서는 안 된다. 가마는 더더욱 타면 안 되는 것이고.

채운: (울먹거리며) 그치만…….

채운, 눈물을 떨군다. 바람이 불고 잠시 정적.

의장: (채운의 눈을 바라보다가) 좋다. 너희를 이곳에 머무르게 해주마.

채운: (눈물을 닦아내며) 정말요?

의장: 대신 조건이 하나있다.

채운: 조건이요?

장승들이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채운을 쳐다본다. 용신과 갑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의장: 여기 있는 귀신들의 한을 풀어 주거라.

불화사 석장승: 말도 안 됩니다! (의장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어서 저들을 가마에 태우고 가시지요.

금은동 석장승: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간을 가마에 태웠다고 말이 많습니
다. 귀신들의 신뢰가 떨어져 손님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가마 귀터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지도 모릅니다.

불화사 석장승: 아니, 신장승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요? 저들을 이곳에 두었다가 다른 인간들마저 우리
세계를 알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요?

의장,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의장: (눈을 떠 채운을 바라보며) 허나,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네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채운, 움찔한다.

불화사 석장승, 표정이 굳고 금은사 석장승 미소를 짓는다.

의장: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채운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또한, 너희의 정체를 이
곳 인간들에게 들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체를 들키는 순간, 바로 가마가 올 것이니. 너희를 지켜보
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채운: (감동하여) 네!

의장: (용신과 갑돌을 가리키며)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갑돌&용신: (당황하며) 채, 채운이를 돕겠습니다.

의장: (미소를 지으며) 좋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불화사 석장승과 금은사 석장승.

의장, 눈짓으로 가마꾼들에게 신호를 주고 큰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장승들과 가마꾼들 모두 사라진다.
채운과 용신, 갑들의 앞으로 날아오는 나뭇잎 종이 한 장, 주소록 3개가 적혀 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셋. 그들 주위의 풀들이 둥그란 보름달 모양으로 누워 있다.

#31. 청주 묘지공원의 가마 귀터, 의장실

장승들이 모여 있다.

불화사 석장승: 무슨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벌을 내리셔야죠.

의장: 벌을 내리는 게 우리 장승들이 할 일이에요?

장승들, 헛기침하며 서로 눈치 본다.

흑암사 석장승: 그렇다고 저리 봐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승들,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의장: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저 아이들이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장승들, 의장을 쳐다본다.

의장: 의장직을 물러나겠소.

장승들, 놀란 표정. 의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 흑암사 석장승, 살며시 미소 짓는다.

#32. 삼호아파트 단지 앞

채운의 손에 청주시 45-1번지 삼호아파트 201호라는 주소가 써진 나뭇잎 종이 들려있다. 종이 내리고 201호라고 쓰여 있는 현관문이 보인다.

갑들: 뭐해? 빨리 눌러 봐!

채운: (침 꼴깍 삼키고) 응.

딩동. 초인종소리가 들리고 인터폰으로 6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은: (인터폰으로 목소리만) 누구세요?

채운: 혹시 여기가 김연희 씨 댁 맞나요?

정은: 맞는데, 누구세요? 저희 엄마가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용신: (답답한 듯) 안에 어머니 계시느냐?

잠시 대답이 없는 정은. 이내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 체인을 걸어놓은 상태. 정은, 오른손에 곰돌이 인형을 꼭 쥐고 있다.

#33. 시내버스 안

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셋. 채운, 용신, 갑돌 순서대로 앉아있다.

용신: 병에 걸려 죽은 자란 말인가?

채운, 버스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펼쳐본다. 정은이가 삐뚤삐뚤하게 적어 놓은 글씨가 보인다. 충북대학교 병원 305호실이 쓰여 있다. 갑돌, 꾸벅꾸벅 졸고 있다.

용신: 처음부터 이렇게 귀신 찾기가 힘들어서야.

채운: (여전히 창밖을 보며) 정은이 말이야.

용신, 궁금한 표정으로 채운을 쳐다본다.

채운: 꼭 나 같아. 그 두려움 가득한 눈 있잖아. 모든 게 겁나고 무섭고…….

용신, 채운을 불쌍하다는 듯 쳐다본다. 그 때 버스가 멈춰서고 덩치 큰 남자가 맨 뒷자리로 다가온다. 용신, 겁먹고 갑돌을 흔들며 깨운다. 갑돌,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나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갑돌: (남자를 바라보며) 멍! 여기 앉으면 안 돼!

용신: 갑돌아, 내 무릎 위로 올라오거라!

갑돌: (용신 무릎으로 달려가며) 깨갱!

덩치 큰 남자, 갑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 의자가 덜컹한다. 채운,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버스정류장에 아기를 업고 있는 채운의 엄마를 발견한다. 곧이어 채운의 엄마가 버스정류장에 서서 채운이가 탄 버스 뒤로 오는 버스를 타려고 손짓한다.

채운: (창문 만지며) 엄마……!

용신과 갑돌, 채운을 쳐다본다.

채운: (창문 두드리며) 엄마!

채운, 내리려고 하지만 버스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버스가 급출발하고 채운, 휘청거리다가 다시 자리에 앉는다.

채운: (눈물 글썽이며) 엄마…….

용신: (놀라며) 어머니를 보았느냐?

채운: (고개 끄덕이며) 응. 분명히 엄마였어.

채운, 별모양 목걸이를 만지며 정은이가 건네준 종이에 눈물을 뚝뚝 흘린다. 용신과 갑돌 어쩔 줄 몰라 한다.

#34. 충북대병원

1층 안내데스크 앞에 서 있는 셋. 갑자기 갑돌 주위를 살피며 냄새를 맡는다.

갑돌: 쿵쿵, 역시 병원이라 그런가? 여기에도 귀신이 꽤 있나보군. 가까운 곳에서 냄새가 나는데?

채운: 혹시 김연희씨일까?

갑돌: (1층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쿵쿵, 그럴지도 모르지. 따라와 봐.

채운과 용신, 갑돌을 따라간다. 화장실 앞에서 멈춰서는 갑돌. 주위를 살핀다. 갑자기 남자 화장실 앞에서 새색시 귀신이 나온다. 셋 몰래 용신의 뒤로 다가가는 새색시 귀신.

새색시 귀신: (음산한 목소리로) 서방님.

용신: 으악!

갑돌과 채운, 동시에 뒤 돌아본다. 용신에게 팔짱을 끼고 매달려 있는 새색시 귀신.

갑돌: 뭐야, 새색시 귀신이었군?

채운: (용신에게) 아는 귀신이야?

용신: 나는 모른다. (손을 저으며) 저, 저번에 산에서 본 것이 처음이란 말이다. (새색시 귀신의 팔을 쳐내며) 아니, 남자! 이, 이게 무슨 짓이오!

새색시 귀신: (눈물을 글썽이며) 서방님, 흑흑.

채운: (조금 냉정한 목소리로) 이 남자, 그 쪽 서방님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갈 길이 바쁘다구요. 방해하지 말아줘요.

용신: 그, 그래. 나는 남자의 서방이 아니오.

새색시 귀신, 용신에게서 팔짱을 푼다. 화가 난 표정. 연지끈지가 더 붉게 변하고 몸이 점점 거대해진다.

갑돌: (당황하며) 새색시 귀신을 화나게 해봤자 좋을 것 없어. 어서 여길 떠나자, 멍!

#35. 305호 병실 앞

채운, 용신, 갑돌 나란히 셋이 서 있다.

연희: 중환자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셋,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305호 병실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어떤 여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

연희: (셋의 시선을 느끼며) 내가 보이니?

채운, 고개를 끄덕인다.

채운: 혹시, 김연희씨?

연희, 낮빛이 변하며 팔짱을 푼다.

#36. 305호 병실 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연희. 연희 주위로 외부와 접촉을 막은 막이 쳐 있다. 귀신 연희와 셋, 누워있는 연희를 바라보고 있다.

연희: 채장암 말기야. 아마 이틀 뒤에 죽을 거야.

채운: 집에 찾아갔었어요. 거기 계실 줄 알았거든요.

연희: 집에도 갔었어. 정은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 글썽이며) 혼자서 인형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서. 그냥 병원으로 왔어.

#37.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

아까 앉았던 순서대로 앉은 셋. 버스 안에 졸고 있는 남자 한 명과 셋뿐이다. 채운, 창밖을 본다. 달이 떠있다. 가로수 길로 버스가 지나간다. 가로수 흔들린다.

연희(N): 내일 정은이 유치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어. 내가 아파서 이인삼각을 해 줄 수가 없어. 네가 대신 뛰어줄 수 있겠니?

졸고 있는 용신과 갑돌.

#38. 채운의 방. 다음날 아침

채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정돈한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웃는다. 편한 체육복 차림. 마루에 나와 신발을 신는다.

할아버지: 밥 먹자마자 어디갈라고?

채운: (신발 끈을 묶으며)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차 조심하고.

채운: (신발 다 신고 일어나서 엉덩이 툭툭 털며) 네!

마당에 어린 갑돌과 놀고 있는 갑돌. 준비를 마친 채운을 본다.
용신, 방에서 허겁지겁 옷을 걸쳐 입고 나온다.

용신: (신발 급하게 신으며) 기다리거라!

#39. 시내버스 안

티격태격하고 있는 갑돌과 용신. 채운은 어제 엄마를 봤던 정류장을 바라본다.

#40. 녹원 유치원 운동장

유치원에 도착한 셋. 유치원 운동장이 시끄럽다. 채운, 주위를 둘러본다. 전부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다.

용신: (주위를 살피며)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갑돌: 그러게, 정은이가 안보이네.

채운: 안에 들어가 보자.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셋.

#41. 유치원 안 놀이방

볼 풀장에 혼자 들어가 있는 정은. 정은을 발견한 채운

채운: 정은아.

정은, 볼 풀장에서 놀다가 뒤를 돌아봐 채운을 발견한다.

정은: (한 손에 빨간 공들고) 어? 어제 봤던 언니다.

그 때 용신과 갑돌 뒤따라 들어온다.

정은: (용신 보며) 어? 어제 봤던 아저씨다.

용신: (어이없다는 듯) 아저씨라니!

정은: (웃으며) 아저씨.

용신: 어허!

채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42. 유치원 운동장

채운, 정은의 발과 자신의 발에 분홍색 리본 끈을 묶는다.

채운: (허리 숙여 끈을 묶으며) 정은아, 하나하면 오른발, 둘하면 왼발이다.

정은, 채운의 눈을 보며 고개 끄덕인다.

채운: (웃으며) 엄마가 어디서 보고 계실거야.

그 때 운동장으로 귀신 연희가 들어온다. 그리고 채운과 정은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채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연희와 눈이 마주치고 서로 웃는다. 연희 옆으로 용신과 갑돌 보인다.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갑돌.

채운: (연희를 가리키며) 정은아, 저기 봐.

정은: (채운이 가리킨 쪽을 바라본다) 아저씨!

채운: 저기에 인사해봐.

정은: (웃으며 손 흔들다) 나 뛰는 거 잘 봐!

용신: (손 흔들며) 잘 뛰거라!

연희: (그 모습을 보고 눈물 글썽이며) 잘해, 정은아.

유치원 선생님: 자! 준비됐으면 모두 모이세요!

채운과 정은, 출발선에 선다. 호루라기가 울리고 뛰어가는 채운과 정은. 하나 둘 하나 둘 서로 입을 맞춘다. 선두로 달려가는 둘. 연희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린다.

용신: (소리 지르며) 선두로구나!

사람들이 용신을 쳐다보고,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는 용신. 용신의 뒤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몰래 용신을 보고 수줍게 웃는 새색시 귀신.

정은과 채운,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외치며 뛰어간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채운과 정은. 환호성과 박수가 들린다.

결승선을 통과한 채운과 정은, 헉헉 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발에 묶은 리본을 풀어주는 채운.

정은: (기쁜 표정으로) 일등이다!

용신과 갑돌 그리고 연희가 정은과 채운에게 달려온다.

용신: (큰 목소리로) 제일 빨리 들어 왔어!

연희: (채운을 보며) 고마워.

채운: (웃으며) 아니에요.

정은: 아저씨 우리 봤어?

용신: 봤다, 봤어.

용신,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채운,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는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간다.

#43. 유치원 문 밖

세제를 들고 있는 채운. 한쪽 손은 정은의 손을 잡고 있다. 그 옆으로 연희와 용신 갑돌이 서있다. 그 때 양복을 입은 정은의 아빠가 뛰어온다.

정은의 아빠: 정은아!

정은: (웃으며) 아빠!

연희: 여보…….

정은의 아빠: (정은이를 안아 올리며) 오늘 운동회 잘했어?

정은: 응! 오늘 이인삼각 일등 했어!

정은의 아빠: (정은에게 뽀뽀하며) 아이고 잘했네, 우리 예쁜 정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못 와서 서운하진 않았어?

정은: (웃으며) 괜찮아! 일등 했으니까!

채운: (세제를 주며) 일등 상품이에요.

정은의 아빠: (그제야 채운을 발견하고 세제를 받으며) 아,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신지?

정은: 오늘 이 언니가 나랑 같이 뛰어왔어!

정은의 아빠: (정은이 보며) 그랬어? (채운 보며) 고맙습니다.

채운: (웃으며) 아니에요. 정은이 오늘 너무 잘했어.

정은의 아빠: 우리 정은이 이제 엄마 보러갈까?

정은: 응!

정은의 아빠: 그럼 이만. (꾸벅 인사한다) 다음에 뵈 수 있으면 또 뵙죠.

정은 아빠, 정은이를 안고 한손에는 세제를 든 채 걸어간다. 이제 거의 해가 다 저간다. 연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정은, 채운에게 손 인사한다.

채운: (정은에게 인사하며) 안 따라가세요?

연희: 병원가면 정은이 울 거야. 나 아픈 거 보고.

채운: (연희 보면서) 아…….

연희: 정말 고마워. 나 이제 하늘로 가도 여한이 없을 거 같아.

채운: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하늘 보며)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정은이와 정은의 아빠,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연희: 그럼 난 이만.

채운: 어디 가시게요?

연희: 아무 곳이나.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 예전 살았던 곳이나 돌아다닐까 해.

채운: 그럼, (인사하며) 안녕히 가세요.

연희: (채운과 용신, 갑돌에게 인사하며) 너희 모두 고마워.

용신: (머쓱해하며) 아, 아닙니다.

갑돌: (웃으며) 멍!

연희, 아까 정은이가 갔던 방향으로 떠난다. 채운과 용신, 갑돌, 연희가 사라질 때까지 그 곳을 바라본다. 서서히 달이 뜬다.

#44. 흑암사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의 긴 나무막대를 쥐고 있는 흑암사 석장승. 불화사 석장승과 함께 용이 물고 있는 수정 구슬을 통해 채운 일행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

불화사 석장승: (이를 갈며) 어찌 인간들이 감히……! 역시 흑장승께서 의장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흑암사 석장승.

흑암사 석장승: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불화사 석장승: 예?

흑암사 석장승: 후훗.

흑암사 석장승 앞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박쥐 떼. 그 중 작은 박쥐 한 마리가 흑암사 석장승에게 날아와 어깨에 앉는다.

흑암사 석장승: (음흉하게 웃으며) 저 인간들을 방해하여 일을 그르치게 해야 한다.
(혼잣말로) 그렇게 되면 저들을 허락했던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겠지…….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어.
하하하하!

#45. 할아버지 집

아침. 채운, 용신의 방에 들어가 용신을 깨운다.

채운: 일어나!

용신: (잠결에) 으어.

채운: (이불을 들추며) 안 일어나?

이불을 들추니 팬티만 입고 있는 용신이 보인다.

채운: (당황해서) 어머!

용신: (깜짝 놀라 이불로 몸을 가리며) 뭐, 뭐냐!

채운: (뒤돌아서) 빨리 일어나. 나, 나가있을게.

채운, 방을 나가고 용신 머리를 움켜잡으며 한숨 쉰다.

#46. 대청마루

밥상 앞에 앉는 용신. 채운, 민망한지 용신의 눈치를 본다.

할아버지: 그니까 좀 깨울 때 일어나지. 해가 중천이다.

갑돌, 할아버지 옆에서 킁킁거리며 웃는다. 채운, 미안한 듯 고개 숙이고 밥만 먹는다.

용신: (술가락 들으며) 잘 먹겠습니다.

채운: (민망한 듯) 잘 먹겠습니다.

#47. 시내버스 안

갑돌: (손으로 입 가리며) ㅋㅋ.

용신: (빠져서) 웃지 말거라.

갑돌: (웃음 참으며) 아, 알았어.

채운: (웃으며) 빨리 학교나 찾아가자.

갑돌: 이번엔 학교야?

채운: 응. 이번 귀신은 집 주소 대신 청주대학교라고 써놨대.

갑돌: 예휴, 더 찾기 힘들겠군.

용신, 여전히 얼굴이 빨개져있다.

#48. 청주대학교 정문 앞.

셋이 내린 버스가 지나간다. 멀뚱히 서서 학교를 보는 셋.

용신: 여기인가?

채운: (고개 끄덕이며) 응. 들어가 보자.

용신: (대학 건물들 보며) 진짜 세상 좋아졌구나.

갑돌: 뭐해? 얼른가자.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셋.

#49.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채운: (조교에게) 죄송한데 여기 박한빈이라는 학생 있나요?

조교1: 한빈이? 한빈이는 방금 나갔는데.

채운: 방금이요?

조교2: 네. 방금 파란색 옷 입은 남자 못 봤어요?

채운: (봤는지 생각해 보다가) 감사합니다.

셋 급하게 뛰어나간다.

#50. 캠퍼스 안

캠퍼스를 뛰어다니는 셋. 학교 정문 앞에 파란색 옷을 입은 한빈의 뒷모습이 보인다.

#51. 횡단보도

채운: 박한빈씨!

한빈,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순간 한빈이 가지고 있던 종이들이 떨어지고 한빈 그 종이들을 몸을 숙여 줍는다. 그 때 트럭이 한빈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만다. 한빈의 몸 붕 떠서 멀리 떨어진다. 한빈, 바닥에 쓰러지고 채운과 용신, 갑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다.

채운: (떨리는 목소리로) 어, 어, 어떡해.

용신 놀라서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갑돌: 어? (주위의 냄새를 맡으며) 쿵쿵.

교통사고 난 한빈의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 사이에 귀신 한빈이 있다.

갑돌: 저기 봐!

채운과 용신, 갑돌 가리킨 곳을 바라본다. 귀신 한빈과 눈이 마주치는 채운. 아직도 놀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한빈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한빈: (다가온 채운을 보며) 내가 보여?

채운, 아직도 놀란 상태로 고개를 힘겹게 끄덕인다.

#52. 한빈의 자취방

한빈, 자신의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채운과 용신, 갑돌을 노려본다.

#53. <회상> 지난 밤, 한빈의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한빈. 이를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귀신 한빈. 이 때,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 몇 장이 떨어진다. 어느새 귀신 한빈 바로 앞에 와 서 있는 불회사 석장승.

한빈: (흠칫 놀라며) 아, 아니, 여긴 어떻게…….

불회사 석장승: 여기서 15일간 편안히 있다 가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거야.

한빈, 긴장한 듯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인다.

불회사 석장승: 내일 인간 둘하고 귀신 한 놈이 널 찾아올 거야. 그 놈들 얘기를 들어주다간 너도 가마 귀터로 끌려가겠지. (음흉한 표정으로) 가마는 오직 딱 한 번밖에 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54. 한빈의 자취방

한빈, 고개를 가로짓는다. 셋을 경계하는 표정.

한빈: 난 귀신이라 뭘 대접해 줄 수도 없고, 알아서들 냉장고에서 꺼내먹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셋.

채운: (애써 침착하게) 저희는 지금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어요.

한빈: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그래?

채운: (한숨 쉬며) 미, 미안해요.

한빈: (의아해 하며) 뭐가?

채운: (한빈 보며) 아까 그 사고……. 막아주지 못해서.

한빈: (웃으며) 그건 막을 수 없어.

채운: 네?

한빈: 아까 그 사고, 내 죽음.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채운: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한빈씨를 찾았더라면 막을 수…….

한빈: (말 끊으며) 아니. 그건 운명이야.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어. 지금 여긴 과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채운: (입술을 깨물며) 아니에요.

한빈: 난 내가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야. 난 미지를 만나야해.

채운: 미지요?

한빈: (씹쓸하게) 내 여자친구. 지금 많이 화나 있을 거야. 오해가 있었거든. (갑자 기 정색 하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인간한테 하고 있는거지? (귀찮다는 듯 이) 이제 그만 나가줘.

한빈, 채운일행을 문 밖으로 쫓아낸다. 문을 닫고 의자로 다시 돌아와 앉는 한빈.

#55. <회상> 청주대 앞 변화가

어스름한 밤. 가로등 밑에 미지와 한빈가 서있다.

한빈: (지친 말투로) 오해라니까.

미지: (화나서) 뭐가 오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한빈: (미지 팔 잡으며) 그게 아니라…….

미지: (팔 뿌리치며) 제대로 말도 못하잖아. 변명하려면 제대로 해.

한빈: (한숨 쉬며) 너 지금 내 말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미지: 듣고 싶지도 않아.

미지, 눈물이 고인채로 한빈을 두고 간다.

#56. 한빈의 자취방 앞.

쫓겨난 셋,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용신: 거 참, 예민한 사내로군.

채운: (한빈의 자취방 창문을 바라보며) 왜 그러는 거지?

잠시 후, 겹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오는 한빈. 셋은 재빨리 전봇대 뒤에 숨는다. 그리고 한빈을 몰래 쫓아간다.

#57. 청주 대학교 앞

갑돌: 예? 또 청주 대학교?

채운: 이곳은 왜 온 거지?

형단보도 앞을 건너려고 하는 미지. 그 뒤에 서서 미지를 바라보는 한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미지가 머리를 매만지며 앞으로 걸어간다.

채운: 혹시 저 여자가 그 여자친구?

갑돌: 쿵쿵.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난다.

용신: (기막히다는 듯) 네 코는 대체……!

이 때, 채운이 급하게 미지에게 달려간다. 클락션을 울리며 미지에게 달려가는 큰 트럭.

채운: 안 돼!

채운, 미지를 세게 밀고 자신도 굴러 넘어진다. 팔, 다리에서 피가 나는 채운. 미지는 가볍게 넘어졌다. 미지에게로 달려오는 귀신 한빈.

한빈: 미지야! 괜찮아?

용신과 갑돌, 놀라서 채운에게 뛰어간다. 한빈, 미지의 이마가 조금 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한빈: (채운에게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지금 미지 이마에서 피가 나잖아!

용신: (어이없다는 듯) 뭐라 하엿소? 지금 채운이가 저 여인을 구한 것이잖소!

한빈, 씩씩대다가 미지에게 다시 달려가다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춤한다.

화가 난 용신은 채운을 일으켜 부축하고 한빈과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간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미지, 괜찮다는 듯 부축해 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을 구해준 이를 찾으려 주위를 살핀다.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채운 일행. 미지는 바닥에 떨어진 전공 책들을 주워 청주 대학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갑돌, 미지를 치고자 했던 트럭이 지나간 자리를 한참 바라본다.

갑돌: (눈을 가늘게 뜨며) 냄새가 났어, 분명히.

#58. 할아버지 집, 채운의 방

할아버지가 채운의 팔에 밴드를 붙여준다.

할아버지: 조심하지 않고, 어찌다 이리 넘어졌누. 자, 이제 다 했으니 좀 쉬거라.

채운: 네.

할아버지가 나가고 곧이어 용신과 갑돌 들어온다.

용신: 그런 높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자기 여자밖에 모르는 한심한 사내야.

채운: 놀래서 그랬던 걸거야. 내일 다시 가보자.

용신: (어이없어하며) 다시? 지금 다시 간다하였느냐?

채운: 어쩔 수 없잖아. 하루 빨리 엄마를 찾으려면, 귀신들의 한을 풀어줘야지. 아직 한빈씨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신, 못마땅한 표정으로 채운을 쳐다본다.

용신: 하, 참! (채운을 노려보다가) 어서 잠이나 자거라.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용신. 난감한 표정으로 용신을 따라 나가는 갑돌.

#59. 흑암사

늦은 밤. 흑암사 석장승이 나무 의자에 앉아서 미소 짓는다. 그의 어깨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작은 박쥐 한 마리.

흑암사 석장승: 아깝게 되었군.

박쥐: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죄송합니다. 저 여자 아이가 방해하는 바람에…….

흑암사 석장승: 좋다. 이번에 확실히 보내버리자꾸나.

박쥐: 낄낄, 말겨만 주십시오!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는 박쥐 때. 흑암사 석장승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메아리되어 울린다.

#60. 대청마루

새벽. 잠을 설친 듯 피곤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는 용신. 채운의 방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머리를 형클인다. 이 때, 채운의 방 안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용신: 어? 무슨 소리지?

채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용신.

#61. 채운의 방 안

채운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있다.

용신: (놀라며) 벌써 일어난 게냐?

채운: (무표정으로) 나 집에 돌아갈래.

용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채운: 나 어제 죽을 뻔했어. (짜증난다는 듯) 그깟 귀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용신: (표정이 굳으며) 그럼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던 약속은 어찌하고? 어머니는?

채운: (용신을 찌려보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운, 잠시 고민하던 용신이 채운의 팔을 잡으려 다가간다.

용신: (채운의 팔을 잡으며) 같이 가자꾸나. 가만있어라, 내 어르신에게 자초지종을 전하고 오겠다. 그럼 곧, 가마가 오겠지.

아쉬운 듯 고개를 떨어뜨리는 용신, 순간 채운의 목을 본다. 보이지 않는 채운의 목걸이. 채운의 머리카락 사이로 삐죽 나온 작은 귀 두 개가 보인다. 이를 눈치 챈 용신. 채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 입을 떼는다.

용신: 네 목걸이는 어찌하였느냐?

채운: (당황하며) 목걸이?

용신: 그래.

채운: 끊, 끊어져서 버렸어. 나중에 다시 새로 사면 되.

용신: (눈썹을 찡그리며 몇 초간 채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돌아! (더 큰 목소리로) 갑돌아! 여기 네 놈이 말한 냄새나는 자가 이 자이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당황하는 채운.

용신: 갑돌아!

이 때, 채운의 몸이 수 십 마리의 박쥐로 갈라진다. 박쥐 떼가 창문을 열고 하늘로 날아가자 이 때 헐레벌떡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갑돌.

갑돌: (날아가는 박쥐들을 바라보며) 헉헉, 괜찮아?

용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생각보다 명석한 것 같구나.

이 때,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 채운이 목에 수건을 걸고 있다. 세수를 하고 온 듯 머리칼이 젖어있는 채운.

채운: (의아한 목소리로) 무슨 일 있었어? 아까 갑돌이를 찾는 것 같던데…….

용신: (뒤를 돌아 채운에게) 아, 네 몸이 괜찮나 궁금하여서 와 보았다.

채운: (웃으며) 괜찮아.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용신: (볼이 붉어지며) 응. 나, 나도 씻고 와야겠다. 가자, 갑돌아.

갑돌: 멍!

채운의 방에서 나가려 발걸음을 옮기는 용신과 갑돌.

용신: (채운에게 들리지 않게 갑돌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 일은 채운이에게 알려지 말거라. 괜한 걱정만 더 할 것이다.

갑돌: 멍! 알았어.

#62. 한빈의 자취방 앞

채운과 갑돌, 2층에 위치한 한빈의 자취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다. 용신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한빈: 뭐야, 너희들.

셋의 뒤에 서 있는 한빈.

#63. 한빈의 자취방 안

한빈의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셋.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뜸을 들이는 한빈.

한빈: 어제는…… 고마웠다.

용신: 이제야 고마운게로군.

채운: (용신의 팔을 잡으며) 용신아!

한빈: 어제는 미지가 다쳐서 나도 모르게 그만…….

채운: 괜찮아요. (다급하게) 정말 한빈씨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뜻 없어요.

채운을 뵈히 바라보는 한빈. 한숨을 크게 내뿜는다.

한빈: 어쩔 수 없지. 거짓은 아닌 것 같으니…….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후에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채운, 의아한 표정으로 한빈을 쳐다본다.

갑돌: (혼잣말로) 역시, 뭔가 있어!

채운: 한빈씨가 어떻게 되는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64. 한빈의 자취방 밖 계단

나란히 앉아 있는 채운, 용신, 갑돌 그리고 한빈.

한빈: (허탈하게 웃으며) 미지에게 줄 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난 여자들 취향을 잘 모르니까 친한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같이 봐 달라했어. 근데 그걸 미지가 본거야. 오해 할 만하지.

채운: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빈: 계속 준비해 온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말해. 오늘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지. 결국 미지한테 뽀뽀를 치려고 가는 길에 죽었지만. 지금 내가 죽은 거, 아직 미지는 몰라.

용신: 뽀뽀?

갑돌: 너넨 뽀뽀도 모르냐?

채운: 들었던 기억은 있어.

한빈: (주머니에서 뽀뽀를 꺼내 흔들며) 이거 몰라?

용신: (신기한 듯)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한빈: 휴대 전화 같은 거랄까?

용신: (채운 보며) 휴대 전화는 무엇이나?

채운: (한숨 쉬며) 그런 게 있어.

한빈: (용신 보며) 애는 뭐하는 애야?

채운: (신경 끄라는 듯) 신경 쓰지 않아도 되요. 그래서 결국 오해를 못 풀었군요.

한빈: (고개 끄덕이며) 그래. 내 부탁은 그거야. 오해를 풀어주고, 미지한테 선물을 전해줘.

채운: 선물은 어디 있나요?

한빈: 학교 내 사물함에 있어.

채운: 그 분을 어떻게 학교에 오게 하죠?

한빈: (뽀뽀를 흔들며) 연락해야지.

#65. 공중전화 박스

채운: 호출 번호를 남기라는데요?

한빈: 687눌러.

채운: 687이요?

한빈: 우리만의 암호야. 학교 정문 앞이라는 거지.

채운: 아……. (번호를 누르며) 했어요.

#66. 청주 대학교 정문 앞

차도에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각종 매장이 들어서 있다. 주위를 둘러보는 용신.

갑돌: 이제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한빈: 그래야지. 금방 올 거야.

용신: 어제 그리 다투었는데 올까?

채운: (용신 때리며) 넌 좀 가만히 있어.

용신: 그렇지 않느냐, 이미 토라진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 것인데!

한빈: (սսսս하게 웃으며) 그렇지.

용신: 그쪽이 잘못했소. 자신의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채운: 채용신 그만해.

한빈: 아니야.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난 늘 미지에게 못해줬어. 언제나 손을 내민 쪽은 미지였지.

#67. <회상> 국문과 강의실 안

교수: 박한빈? 자넌 왜 숙해 있는 조가 없는 건가? 조별로 과제를 해야 하는데.

한빈: 전 혼자가 편해요.

교수: 그래도 이진…….

한빈: 점수에 문제가 생기나요?

교수: 그건 아니지만……. 알았네.

수업이 끝나고 모두들 짐을 싣는다. 그 때 미지가 한빈에게 다가온다.

미지: 박한빈?

한빈: 응. 그런데?

미지: 나랑 같이 조할래?

한빈: 뭐? 나는…….

미지: (환히 웃으며) 나랑 같이 조 하는 거다? 알았지? 내일 봐!

미지 뛰어 나가고 한빈, 그런 미지를 보며 얼굴이 빨개진다.

#68. 청주 대학교 정문 앞

한빈: 용기를 낸 쪽도 미지였고.

용신: 용기라…….

갑돌: (놀라며) 어? 그 여자야!

갑돌이 가리키는 쪽에 미지가 급하게 뛰어온다. 초췌한 물결의 미지.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미지.

채운: (달려가서) 이미지씨?

미지: (정신이 나간채로) 어? (채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혹시 어제…….

채운: 네? (웃으며) 네.

미지: (기운 없이) 아, 어제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채운: 사실, 한빈 씨 부탁받고 나왔어요.

미지: (놀라서) 한빈이요? 한빈이라면 어제…….

채운: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미지: (울먹거리며) 부탁이요?

용신: (조금 뽀루룩한 표정으로) 박한빈씨 사물함, 거기 열어보시오. (채운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만 가자.

용신, 채운의 팔을 끌고 정문을 나서려고 한다.

채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 비밀번호는 486이에요!

미지: (조용히 혼잣말로) 486…….

미지,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등을 돌리고, 한빈과 채운일행이 미지를 뒤따라간다.

#69. 강의실 앞 사물함

미지, 심호흡을 하고 자물쇠의 번호를 천천히 누른다. 한빈 그 옆에 서있다. 채운과 용신, 갑돌 뒤에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

드디어 사물함이 열리고 그 안에 꽃과 인형, 반지, 편지가 있다. 미지 눈물에 맺힌다. 미지 편지를 열어본다.

한빈(N): 미지야 나야. 놀랐지? 이거 너 몰래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음…… 미지야.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어떤 반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 애랑 같이 보러간 거였어. 보잘 것 없지만 너한테 해 주는 첫 서프라이즈 이벤트니까……. 오해 풀어. 사랑해.

미지, 맺혀있던 눈물 떨어지고, 편지를 잡고 운다. 한빈, 그 옆에서 미지를 안아주려 하지만 귀신의 형제라 만져지지 않는다. 한빈도 눈물을 흘린다.

#70. 청주 대학교 캠퍼스

미지가 학교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넷.

한빈: 이거면 됐어. (채운에게 손을 건네며) 고맙다.

용신, 채운대신 얼른 한빈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는다.

한빈: (웃으며) 자식, 알았다.

용신: (눈썹을 찡그리며) 무엇을 알았다는 거요?

한빈: 아무튼 난 간다. 수고들 해라. (뒤돌아서 걷다가 멈춰 서서) 아, 그리고 너희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누군가 너희를 노리고 있어.

용신: 그 쪽이나 몸조심하지!

한빈: (손을 흔들며) 난 걱정 마시게나, 이 양반아.

용신: 흥!

채운, 갑돌: (손을 흔들며) 안녕히 가세요.

계속 손을 흔들며 걸어가다가 사라지는 한빈.

#71. 청주 대학교 인문대 옥상

넷을 바라보는 불회사 석장승, 박쥐를 나무 막대로 때리며 혼을 낸다.
노을이 지고 있다.

#72. 할아버지 집, 대청마루

갑돌이 자고 있고 달이 어느새 점점 차오르고 있다. 개구리 우는 소리 들린다. 채운과 용신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다.

용신: (달을 보면서) 정말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채운: 뭐?

용신: 하긴, 과거라는 건 지나간 것이니 바꿀 수 없겠지.

채운: (혼잣말로) 그럼 나도 엄마를 구할 수 없을까?

용신: 엄마를 구한다니?

채운: (고개를 저으며) 아냐……. 용신아, 나 좀 두렵다. 주어진 시간이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용신: 주어진 시간이 반이나 남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았느냐?

싱긋 웃는 채운. 채운을 따라 웃는 용신.

채운: (일어나며) 자야겠다.

용신: (채운의 어깨에 올리려던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머쓱하게) 그, 그래. 잘 자거라.

채운: 응. 너도.

채운, 방으로 들어가고 용신 한숨 쉰다.

#73. 채운의 방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달빛.

웅크린 채 자고 있는 채운의 등을 비춘다. 채운의 목에 있는 별모양 목걸이가 반짝인다.

눈을 꼭 감고 식은땀을 흘리는 채운. 몸을 뒤척인다.

#74. 채운의 꿈 속

가로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채운. 주위가 아주 밝고 환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간간히 보인다. 환한 하늘 위에 떠 있는 초승달이 서서히 보름달로 변해간다. 그 광경을 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채운. 다급하게 주위를 살핀다.

채운: (목소리가 크게 울리며) 엄마! 엄마!

채운의 엄마: (멀리서 들리는)……채운아?

채운: 엄마야? 어디 있어요?

주위가 너무 환해서 보이지 않는 채운의 엄마. 목소리만이 들린다.

채운의 엄마: 엄마 여기 있지.

채운에게 점점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채운은 천천히 그림자에게 다가간다.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입만이 보인다.

어린 채운: 엄마!

엄마가 어린 채운을 들어 안는다. 까르르 웃는 어린 채운. 점점 멀어지는 그림자 둘.

채운: (멍하니 서서) 엄마…….

작은 마을이 비취지고 언덕에 있는 주택에서 회색빛 연기가 피어오른다. 곧이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채운: (정신을 차리며) 그 쪽으로 가면 안 돼!

채운의 엄마와 어린 채운은 웃으며 타오르고 있는 집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들을 잡을 수 없는 채운. 가마꾼들이 등장하여 채운을 데리고 간다.

#75. 채운의 방 안

채운: (크게 소리치며) 안 돼!

천천히 F.O, F.I

#76. 청주 고등학교 교문 앞

채운과 용신, 갑돌 나란히 교문 앞에 서서 운동장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채운: 이제, 마지막이야.

갑돌: (주먹을 불끈 쥐며) 응.

#77. 3학년 4반 교실 앞

반 아이들의 사물함을 보고 있는 셋.

갑돌: 김주혁이라는 아이는 없는데?

용신: (사물함의 이름표를 일일이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잘 찾아 보거라. 없을 리 가 없다.

갑돌: (눈을 가늘게 뜨며) 없어. 벌써 세 번이나 봤다고.

채운, ‘장애인’이라 쓰인 이름표가 붙어 있는 사물함을 주시한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뒷문에서 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시끄러워지는 복도.

채운과 용신이 반 안을 살펴본다. 책상 위에 얹혀 있는 한 남자 아이. 오른손을 들어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두드린다. 종이 위에 그려진 피아노 건반, 손가락들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책상에서 고개를 드는 아이. 명찰에 ‘김주혁’이라고 써 있다.

채운, 교실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때 등장하는 선생님.

선생님: 거기 누구니?

용신, 갑돌 놀라서 채운을 끌고 복도 끝으로 달려간다. 계단을 급하게 내려와 1층 뒤뜰로 가는 셋.

#78. 학교 뒤뜰

채운: 주혁이, 손이 불편한 아이였어.

용신: (주위를 살피며 숨을 몰아쉰다) 우리는 귀신이 된 주혁이를 찾아야 해.

채운: 주혁이 주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갑돌: (코를 킁킁대며) 냄새가 나지 않았어.

이 때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1층 복도를 살펴보는 채운. 음악실 표지판이 보인다.

채운: (갑돌을 바라보며) 음악실이야.

갑돌: (복도 바닥 냄새를 맡으며 음악실 쪽으로 향한다) 어? 킁킁, 냄새가 난다.

용신과 채운, 갑돌의 뒤를 따라간다.

#79. 음악실

음악실 안을 들여다보는 셋.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되고 있는 모습. 건반이 빠르게 움직인다. 눈을 비비는 용신.

용신: 이 시대에는 저절로 연주되는 악기도 있는 것이냐?

채운, 앞문을 강하게 연다. 피아노 연주가 멈추고 창문에 달린 커튼 속에서 등장하는 귀신 주혁. 말없이 그 셋을 바라본다. 곧이어 두려운 표정으로 다시 커튼 속으로 사라진다. 놀라 달려가는 채운. 커튼 뒤를 찾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80.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는 셋. 다들 힘이 빠져 있다.

갑돌: 그 귀신. 우리를 무지 경계하고 있었어.

채운: 주혁이,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 없어.

갑돌,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앞발을 들어 귀를 긁는다. 채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학교 뒤뜰로 향한다.

갑돌: 어디가?

#81. 학교 뒤뜰 분리수거함

불편한 손으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있는 귀신 주혁. 음악실로 들어가려던 채운이 주혁을 발견하고 다가간다.

채운: (상냥한 말투로) 뭐 찾는 거 있어?

주혁: …….

채운: 같이 찾자. 찾아 줄게.

주혁: 악보.

뒤따라온 용신과, 갑돌. 주혁을 발견하고 달려온다.

잠시 후, 쓰레기를 뒤집어 쓴 용신과 갑돌.

용신: (지쳐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갑돌: 나도 못 찾겠어.

갑자기 새색시 귀신이 분리수거함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난다. 수줍은 표정으로 용신에게 부채질을 해주는 새색시 귀신. 그 종이 안에 그려져 있는 선명한 악보. 채운이 재빨리 새색시 귀신의 손에 있는 종이를 뺏는다. 새색시 귀신, 채운을 찰려보며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라 용신의 곁으로 가는

새색시 귀신.

채운: (주혁을 바라보며 기쁜 표정으로) 이거. 이거 맞지?

주혁: (채운이 들고 있는 악보를 집어 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용신, 의아한 표정으로 주혁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본다. 새색시 귀신이 용신의 팔 한쪽에 기대어 울고 있다.

갑돌: (기쁜 표정으로) 찾았다, 멍!

#82. 운동장

스탠드에 나란히 앉은 채운, 용신, 갑돌, 주혁. 그리고 거리를 두고 새색시 귀신이 다소곳이 앉아 있다. 지쳐서 잠이 든 갑돌. 용신은 채운의 어깨 너머로 주혁이 들고 있는 악보를 신기하게 쳐다본다.

채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가 뭘 도와줄까? 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 들어줄게.

주혁: (채운의 눈을 피하며)그런 거…… 없어.

채운: (애원하며) 난 네 소원을 들어줘야 해. 그래야, 엄마를 찾을 수 있어.

주혁,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팸플릿을 꺼낸다. 겉표지에 ‘동아 피아노 콩쿨’이라고 쓰여 있다.

#83. 할아버지 집

밤. 반달이 떠 있다. 마루에 앉아 있는 채운과 용신.

용신: 나보고 그 양놈들이 만든 악기를 연주하라는 말이나?

채운: 응. 주혁이 소원이래. 콩쿨 대회에 나가는 거.

용신: 그 콩쿨인지 콩물인지 내가 출전하여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냐는 말이다!

채운: 연습하면 되지. 안 그래? 사실 넌 주혁이에게 네 몸만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표정이 굳으며) 알잖아, 시간 얼마 안남은거.

용신, 입술이 삐죽 나왔다가 서서히 들어간다.

#84. 청주 고등학교 음악실

용신, 뽀루통한 표정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다.

용신: 이러다가 저번처럼 들키기라도 한다면!

채운: 걱정 마, 갑돌이가 망을 볼 거야.

앞문 앞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갑돌.

갑돌: 응. 여기는 걱정 마.

이 때, 커튼 사이에서 주혁이가 나타난다.

채운: (반갑게 웃으며) 주혁아!

피아노의 음계를 손가락 하나하나 눌러가며 용신에게 알려주는 주혁. 땀을 흘리며 배워가는 용신.

#85. 피아노 콩쿨 대회 공연장.

산만한 객석.

사회자: 잠시 후 대회가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준비해주시고,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뒷문을 통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문이 닫히기 전 몰래 들어오는 채운과 갑돌.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경연이 시작된다. 참가자 1번부터 들어와 인사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다. 참가자 5번이 연주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간다.

사회자: 다음 참가자. 6번, 김주혁 학생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용신. 주혁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본다. 용신이 보이지 않는다.

채운: (다급하게) 갑자기 어디 간 거야?

#86. 참가자 대기실

긴장하여 숨을 몰아쉬는 용신.

용신: 이것 참, 떨리는군.

이 때,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한 남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는 출입증을 메고 있다.

용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 제 차례입니까?

남자: 아직 아닙니다. 밖에서 어떤 분이 찾으십니다만…….

용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저 말입니까? (혼잣말로) 채운인가?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용신.

#87. 대기실 밖

문이 열리고 문 앞에 미로가 펼쳐져있다. 당황하는 용신.

용신: (주변을 살피며) 채운아! 갑돌아!

돌아오는 메아리.

용신: (당황하며) 어떻게 된 일이지? 게 아무도 없느냐!

돌아오는 메아리. 용신, 한숨을 쉬더니 미로로 된 길을 걷는다. 식은땀이 난다.

#88. 콩쿨 대회장

갑돌: 무언가 이상해.

채운: 뭐가?

갑돌: 넌 여기서 시간을 끌어줘. 내가 용신이를 찾아볼게.

갑돌, 콩쿨 무대장을 뛰쳐나간다. 주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갑돌이 나간 곳을 바라본다.

진행자: 김주혁씨?

채운: (큰소리로) 잠시 만요! 지금 주혁이가 사정이 있어서…….

진행자: 기권인가요?

채운: (놀라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혼잣말로) 어떻게 된 거야, 채용신!

주혁, 점점 기운이 없어진다.

#89. 대기실 복도

갑돌: (대기실 쪽 냄새를 맡으며)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갑돌,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간다. 그 때 눈앞에 선글라스를 쓴 박쥐가 보인다.

갑돌: 어? 너는!

선글라스를 쓴 박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갑돌. 박쥐 벽에 붙어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다. 갑돌 박쥐가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본다. 용신에게만 보이는 미로, 정신을 잃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용신이 보인다.

갑돌: (소리치며) 채용신! 뭐하는 거야?

박쥐: (놀라며) 예잇. 들켰다. (날아간다)

갑돌: (날아가는 박쥐 보며) 너 거기 서!

박쥐, 재빨리 날아가고 갑돌이 용신에게 뛰어간다. 용신,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갑돌이 다가간다.

용신: (아직도 미로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대체 여기가 어디냐.

갑돌: (큰소리로) 채용신!

용신: (그제야 정신이 들며) 어? 갑돌아! (주위를 돌아보며) 미로는…….

갑돌: 시간 없어, 지금 네 차례라고!

용신: (놀라며) 저, 정말이냐!

갑돌: 따라와!

용신, 갑돌을 따라 무대로 들어간다.

#90. 콩쿨 대회장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용신,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는다. 손가락을 풀며 숨을 고르는 용신. ‘도’를 한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이 때, 용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주혁의 영혼. 눈을 감은 용신이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린다. 부드럽게 시작하는 연주. 뻗뻗한 듯 느껴졌던 용신의 손가락이 연주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인다.

새색시 귀신: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어쩐!

안경을 치켜 올리는 심사위원1. 용신(주혁)의 프로필 종이를 뒤적이는 심사위원2. 용신을 바라보는 심사위원3.

용신, 눈을 감고 연주한다. 채운은 용신에게서 자유로운 몸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주혁의 모습을 본다. 용신이 연주를 끝내고, 눈을 뜨자 공연장에 적막이 흐른다.

용신,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온다.

#91. 공연장 밖 복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 가운데에 채운과 용신, 갑돌 그리고 주혁이 나란히 서 있다. 이 때 콩쿨 관계자가 커다란 전지를 들고 나온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복도 한 가운데의 기둥에 전지를 붙인다. 수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전지.

사람들이 빠르게 전지 앞으로 모여든다. 두 손을 모으고 긴장된 표정으로 전지 앞으로 다가가는 채운. 용신과 갑돌도 뒤를 따른다.

수상자와 학부모가 서로를 안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그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주혁.

채운: (사람들을 밀치며) 잠시만요!

용신: 어디 보자.

갑돌: 명!

용신, 손가락을 들어 명단을 살펴보지만 수상자의 이름에 주혁은 없다. 고개를 떨구는 채운.

채운과 용신, 그리고 갑돌 뒤를 돌아 주혁을 바라본다. 주혁, 그들을 향해 활짝 미소 짓는다.

#92. 청주고등학교 앞

주혁이 교문 앞에 서 있고 맞은편에 채운, 용신, 갑돌 마주보고 서 있다.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는 용신.

용신: (불이 붙어지며) 난 수상할 줄 알았다…….

주혁, 구부러진 손을 용신에게 건넨다.

용신: 응?

이 때 갑자기 나타난 새색시 귀신이 불을 가리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주혁에게 손을 건넨다.

주혁, 당황하여 망설이다가 악수한다.

새색시 귀신: 정말 멋지십니다.

주혁: (당황하며) 고……맙습니다.

주혁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는 새색시 귀신. 주혁은 새색시 귀신의 팔을 떼어내려 하고 새색시 귀신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혁의 팔을 꼭 붙잡는다.

용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채운을 쳐다본다.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는 채운.

채운: 이제 용신이한테 안 붙을 거야?

새색시 귀신: (주혁의 팔을 더 꼭 잡으며) 내 서방님은 이분이셔.

얼굴이 빨개진 주혁.

새색시 귀신: (주혁에게 안기며) 서방님.

용신: (웃으며) 잘 어울리는데?

갑돌: 잘 가!

새색시 귀신과 주혁이 그들을 향해 꾸벅 인사하고 쿵쥔장을 빠져나간다. 몇 걸음 걷다가 사라지는 둘. 채운, 용신, 갑돌 그 둘이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본다.

#93.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맨 뒤 좌석에 앉아 있는 채운과 용신, 그리고 갑돌.

용신: (후련해 하며) 아, 이제 홀가분하다.

갑돌: 이렇게 쉽게 떨어질 줄이야.

용신: (웃으며) 그러게 말이다.

채운: (창 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주혁이.

용신: 응?

채운: 주혁이는 상을 타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

갑돌: 응.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갖고 싶었던 거야.

용신: 못다 이룬 꿈을……(자신의 손가락들을 어루만지며) 이루고 싶었던 거겠지.

채운: 꿈?

용신: 응. 꿈을 꾸고 있었다, 주혁이. 아주 기뻐했거든, 연주하면서.

채운: 꿈…….

#94. 가로수길 마을

노을이 지고 있다. 멀리 보이는 할아버지 댁 초가집. 그 쪽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채운, 용신, 갑돌.

갑돌: 아까 방해하던 귀신들, 아무래도 흑암사 석장승 부하들 같아.

채운: 흑암사 석장승이 왜 그런 짓을?

갑돌: 글썄. 아무튼 더 조심해야겠어.

#95. 할아버지 집 앞마당

채운, 용신, 갑돌 들어온다.

할아버지: (부엌에서 나오며) 허허, 윤석들. 요즘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

갑돌: 멍멍! (울상을 지으며) 할아버지…….

어린 갑돌: 멍!

채운: 죄송해요. 앞으론 일찍 다닐게요.

할아버지: 어서 손 씻고 와. 저녁 식사 하자꾸나.

채운, 용신 고개를 떨어뜨린다.

할아버지, 갑돌을 보지 못하고 어린 갑돌을 들어 끌어안는다.

할아버지: 녀석, 너도 배가 고프지?

#96. 가로수 마을 정자

아침, 정자에 앉아 마을 전경을 바라보는 용신. 4B 연필 하나를 들고 뚫어지게 보다가 바닥에 굴린다.
용신을 향해 달려오는 갑돌.

갑돌: (용신의 옆자리로 뛰어올라가며) 연필이네?

용신: 응. 이것 참 간편하고 좋다. 붓 같기도 하고. 어르신이 주셨다.

갑돌: (용신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종이는?

용신, 고개를 가로 젖는다.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는 용신.

용신: 하던 일도 끝내고 오지 못하고, 다 두고 와 버렸는데, 이제 정말 돌아갈 때 가 되었구나.

갑돌: (망설이다가) 종이…… 구할 수 있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용신: (갑돌을 보며) 부탁?

#97. 할아버지 댁 마당

고추를 널고 있는 할아버지. 갑돌, 용신의 바지 끝을 물고 마루로 데려가 앉힌다.

갑돌: 여기 앉아서, 할아버지 초상화 좀 그려줘.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다 나오는 갑돌. 종이 두 장이 갑돌의 입에 물려 있다.

용신: (갑돌에게 종이를 건네받으며) 초상화? 갑자기 웬 초상화냐.

갑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나, 13년을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받기만 했어. 비록 내가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림 하나 그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다리가 좋지 않으셔서 사진 찍으러 시내에 나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

용신: (갑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충견이로구나.

갑돌: (할아버지 옆에서 재롱을 피우는 어린 갑돌을 바라보며) 내가 저것보다 더 어렸을 때 이 집 앞에 버려졌었어. 할아버지는 날 불쌍히 여기고 자식처럼 돌봐주셨지.

용신: 어르신도, 너도 서로가 각별하겠구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알았다. 내 실력 발휘 좀 해보자.

용신, 종이를 펼친다.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용신. 4B 연필을 마룻바닥에 굴리다 집어 든다.

용신: 어르신!

할아버지: (일을 멈추고) 응? 무슨 일이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팔을 잡고 마루로 끌고 오는 용신. 자신의 건너편 자리에 할아버지를 앉힌다.

용신: 제가 그림 한 장 그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용신: (허리를 곧게 펴며) 예, 어르신. 저 이래봐도 화가입니다.

할아버지: (용신을 장난스럽게 쳐다보다가) 어디 한 번 그려봐라.

용신, 양반다리로 자세를 고치고 앞에 종이를 펼친다. 허리를 숙여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용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채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

#98. 부엌

가마솥에 장작을 넣는 채운. 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용신과 할아버지의 목소리.

용신: 어, 가만히 좀 계십시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아, 알았다.

가마솥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채운. 목걸이의 펜던트를 열어 가족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쉰다.

#99. 대청마루

식은땀을 흘리는 용신. 눈을 부릅뜨고 세세하게 할아버지를 그리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이 때, 어린 갑돌 다가와 용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뽐낸다.

용신: (흥분하며) 이놈이!

어린 갑돌: 깨갱!

할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며) 갑돌아!

용신: (두 손을 파닥거리며) 그,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다시 자리에 앉고 용신 할아버지 얼굴의 주름살을 마저 그린다.

갑돌: (살짝 웃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하네, 용신.

용신, 갑돌을 살짝 췌려본다. 잠시 후, 용신이 완성된 그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신: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어떠십니까, 이 채용신의 그림이!

할아버지, 용신에게 다가가 그림을 건네받는다. 방에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끼고 나오는 할아버지. 그림을 바닥에 두고 자세히 살펴본다.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나?

용신: (당황하며) 어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용신, 자리에 주저앉는다.

용신: (혼잣말로) 내 그림 실력이 그리 퇴보했던 말인가! 명색의 조선 최고의 화가였는데…….

할아버지, 돋보기안경 위로 용신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린다.

할아버지: 하하하! 녀석.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용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정말입니까?

할아버지: 조선 최고의 화가라고 허풍을 떠는 줄 알았더니만 정말 잘 그리는구나!

용신: (기뻐하며) 하하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갑돌,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채운이 부엌에서 상을 들고 마루로 나온다.

채운: 이제 아침 식사 하세요!

동그란 식탁 앞에 앉은 할아버지와 용신, 채운.

굴비 두 마리가 놓여 있다. 생선 가시를 잘 발라먹지 못하는 용신.

채운, 그 모습을 보고 젓가락을 들어 가시를 바른다.

이 때 채운, 젓가락질을 멈추고 머릿속에 예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지나간다.

#100. <회상> 시장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있는 어린 채운.

어린 채운: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웃으며) ‘시장’이라는 곳이야.

어린 채운: 시장? 우와! 생선이다!

엄마: 저건 굴비라고 하는 거야.

#101. 버스 정류장

버스에서 내리는 채운, 용신, 갑돌.

용신: 이곳이 그 때 어머니를 보았던 곳이나?

채운: (한숨 쉬며) 응. 엄마를 찾을 단서라곤 이곳 하나뿐이야.

채운, 펜던트 속 엄마의 사진을 용신과 갑돌에게 보여준다.

갑돌: 시간이 없어. 어서 찾아보자, 명!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채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엄마를 찾는다. 채운의 옆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용신과 갑돌.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긴 생머리의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간다. 뒷모습을 보고 빠르게 뛰어가는 용신.

용신: 이보시오!

뒤를 돌아보는 여자. 채운의 엄마가 아니다.

여자: 무슨 일이죠?

용신: 아, 아니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용신.

몇 시간 후, 노을이 지고 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거의 내리지 않고 지친 채운 일행이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다.

#102. 할아버지 집 대청마루

밤, 거의 보름달 모양을 하고 있는 달. 용신과 채운이 나란히 앉아 있다.

채운: 내일이네.

용신: 그래, 내일이구나. (고개를 돌려 채운의 눈치를 본다)

채운: (애써 웃으며) 엄마를 찾으면 뭐부터 말해야할까?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웃으면서 말해야겠지?

용신: 응. 그러면 어머님도 기뻐하실 게다.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채운의 어깨를 다독이는 용신.

용신: (긴장한 표정으로 달을 바라보며) 달이 참 밝구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용신: (달을 바라보며) 어느새 보름달이 다 되었어.

채운: 그러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지?

용신: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픽 웃으며) 썩 나쁘지 않았다.

채운: 뭐가?

용신: 이곳.

채운: (미소 지으며) 나도.

채운과 용신, 달을 한참을 바라본다.

#103. 다음 날 아침, 채운의 방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운, 헝클어진 머리를 비비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다.

거울 옆에 있는 달력을 본다. 약속한 15일이 되는 날이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15일.

채운: (목걸이를 만지며)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04. 대청마루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채운을 보며) 시장에 가서 참기름 한 통 좀 사와야겠구나.

채운: 네. (한숨 쉬며) 시장에 갔다가 어디 좀 잠시 들렀다 올게요.

할아버지: 그러려무나. 또 늦지 말고.

채운: 네.

주머니를 뒤적이는 할아버지, 만 원짜리 한 장을 채운에게 건넨다.

#105. 시장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 채운과 용신, 갑돌 다 같이 시장에 나와 장을 보고 있다.

채운: (용신에게) 여기 들렀다가 이따 정류장에 다시 가보자.

용신: 그래.

참기름 파는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채운, 용신이 찾아준 참기름 통을 들고 값을 지불한다. 그리고 뒤로 등을 돌리는 순간, 멀리 시장을 나가는 엄마를 발견한다.

채운: (놀라며) 어, 엄마?

갑돌: 뭐?

귀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채운의 엄마. 다급히 그 뒤를 쫓는 채운과 용신. 먹을거리에 정신이 팔려있던 갑돌 또한 그들을 쫓는다. 이 때, 용신의 상투 뒤에 숨어있던 박쥐가 푸드득거리며 하늘로 날아간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리는 채운과 용신. 멀리 걸어가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뛰어가는 채운.

채운: (엄마의 어깨를 잡으며) 엄마!

#106. 채운의 집.

어린 채운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적거린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울먹거린다.

#107. 시장

채운: (엄마를 닮은 뒷모습의 여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엄마!

#108. 채운의 집으로 가는 길.

채운의 엄마, 시장을 나와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면서 걸어간다.

#109. 시장

이 때, 평하고 터지는 채운의 엄마. 채운의 반대편에서 용신이 채운의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의 어깨를 잡자 똑같이 평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얼이 빠져있는 용신.

갑돌: 함정이야!

채운, 용신, 갑돌의 머리 위로 박쥐 두 마리가 날아다닌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박쥐들.

갑돌: 어서 흩어져! 박쥐들이 다시 따라붙기 전에!

채운의 일행 시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뛰어간다. 그 때 갑자기 떼로 몰려오는 박쥐들. 시장 전체를 뒤덮는다.

채운: (놀라며) 저게 뭐지?

용신: (채운에게) 어서 어머니를 찾아라!

갑돌: 여긴 우리한테 맡겨!

#110. 채운의 집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채운. 그때 두꺼비집이 함선되어 지지직거린다.

#111. 시장

박쥐들, 채운에게 달려들고, 용신과 갑돌이 막는다. 난리가 난 시장.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채운: (당황하며) 애들아!

용신: 어서 가!

채운: (결심한 듯) 응!

채운, 박쥐들을 뚫고 시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애쓴다. 갑돌이 박쥐들에게 잡혀 공중으로 떠오르고, 화가 난 갑돌이 그들을 깨물어 달아나게 한다. 팔을 휘둘러 박쥐를 쫓고 있는 용신.

#112. 채운의 집

두꺼비집의 전기들이 지지직거리다 이내 ‘팡’하는 소리와 함께 터진다. 어린 채운 계속 울고 있다.

#113. 채운의 주택 앞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엄마.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다.

엄마: (장바구니 떨어뜨리며) 채, 채운아.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엄마.

#114. 시장

여전히 박쥐들과 싸우고 있는 채운일행.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채운이 구석에 남사당패가 두고 간 팽과리를 발견한다. 채를 들어 큰 소리로 팽과리를 두들기는 채운. 소음에 약한 박쥐들이 괴로워하고 귀를 막는다. 잠시 후, 모두 도망간다.

채운 일행, 잠시 주춤하다가 시장 밖으로 뛰어나가 주위를 살핀다. 채운의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는 채운, 조금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을 발견한다.

채운: 저기야!

채운이 가리킨 곳을 향해 뛰어가는 채운 일행.

#115. 채운의 집, 주택 앞.

채운: (눈동자가 흔들리며) 안 돼! 엄마를 살려야 해.

채운, 집으로 뛰어가고 용신과 갑돌 채운을 따라 뛰어간다.

#116. 현관문 앞

채운, 들어가려 하고, 용신 계속 말린다.

용신: 어딜 들어가려 하느냐!

채운: (용신을 밀치며) 놔!

갑돌: 정신 차려!

채운, 그들을 무시하고 뛰어 들어간다.

#117. 집 안

연기가 자욱하다.

채운: (손으로 입을 막고) 콜록. (힘겹게) 엄마.

힘들게 앞으로 나아가는 채운.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 없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채운, 방문이 부셔지고 그 앞에 엄마가 있다. 엄마, 정신을 잃은 어린 채운을 꼭 껴안고 있다.

채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여기서 콜록 나가자.

엄마, 힘겹게 눈을 뜬다.

채운: (울면서) 뭐해. 엄마 이리다 죽어!

엄마: (껴안고 있던 아기 채운을 주며) 채운이…….

채운: (엄마의 팔을 잡으며) 쿵쿵. 나가자!

엄마: (정신이 반 나간채로) 채운이 좀 먼저…….

채운: (소리치며) 엄마!

엄마: (채운의 목걸이를 보고 놀라며) 너… 혹시.

채운: (어린 채운을 꼭 껴안고) 엄마…….

그 때 곁에 있던 옷장이 불에 타서 쓰러진다. 놀라는 채운. 연기를 가득 마신 엄마의 정신이 희미해진다.

엄마: 얼른 나가.

채운: (울면서) 싫어. 엄마 같이…….

엄마: 엄마가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힘겹게) 부탁이야……. 어서 나가.

채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어린 채운을 안고 밖으로 나간다. 그 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채운과 어린 채운을 챙겨준다.

용신, 급하게 달려와 채운을 부축한다.

채운: (힘겹게) 이제 엄마를…….

갑돌: 너 이미 많이 다쳤어!

채운: 엄마…….

채운. 다시 그 불구덩이로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 들어가다가 쓰러진다. 그때 채운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중년의 남자가 보인다. 구급대원들이 남자의 팔을 잡고 말린다. 시야가 흐려지는 채운.

#118. 채운의 방

조금 어두워진 방 안.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다. 목이 막힌 느낌에 쿵쿵하다가 눈을 뜨는 채운. 주위를 둘러보다가 벌떡 일어난다.

#119. 대청마루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있던 용신과 갑돌, 채운이 방에서 나오자 놀라서 쳐다본다.

채운: (용신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엄마는?

용신: (자리에서 일어나 채운을 바라본다) …….

채운: 엄마는!

눈물이 가득 차오른 채운의 눈. 붉게 충혈 되어 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용신의 어깨를 잡는 채운.

채운: 엄마는 어떻게 됐냐고!

용신, 고개를 가로 젖는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채운.

용신:막을 수 없었다.

채운: 아냐! 내가 엄마를 구할 수 있었어!

채운, 눈물을 뚝뚝 흘린다.

용신: (흥분하며)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게, 네 목숨 내주면서 어머닐 구하는 것이 었더냐. 네가 다시 들어갔으면 넌 죽었을 거다. 그것이 진정 네 어머님이 바라는 것이었겠느냐!

채운: 엉엉.

갑돌: (용신의 다리를 툭툭 치며) 이봐, 그만해.

통곡하는 채운. 채운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용신과 갑돌.

#120. 흑암사

보름달이 떠있고 나무 새 세 마리(숫대)가 그 주위를 날아다닌다. 흑암사 석장승이 앉아있는 곳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의장.

의장: 너의 짓이었구나.

흑암사 석장승:

당황한 표정으로 의장을 보는 흑암사 석장승.

의장: 나를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한 것이냐?

흑암사 석장승: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래. 널 끌어내고 싶었다. 늘 같이 해도 너만 잘되는 것이 억울했어.
(큰 목소리로) 나는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것을 넌 항상 쉽게 얻지 않았느냐!

의장: 내가 쉽게 얻었다 생각하느냐?

침묵하는 흑암사 석장승

의장: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난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했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네게 자리를 내주려고 했어. (잠시 침묵하다가) 넌 늘 내 우상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으니까. 난 이제 많이 늙었으니, 명월사로 돌아가 쉬어야겠다.

흑암사 석장승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다 천천히 밖으로 나가는 의장. 무릎을 꿇는 흑암사 석장승,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쉰다.

#121. 할아버지 집 대청마루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상을 내온다. 마루에서 서둘러 내려와 상을 건네받는 용신. 힘없이 앉아있는 채운. 그 옆에 앉아 채운의 눈치를 보는 갑돌.

할아버지: 어서 먹어라. 오늘 내가 좀 늦었구나, 허허!

갑돌: 멍멍! (용신의 팔을 잡으며) 조금 있으면 가마가 도착해. (산 쪽을 바라보며) 서둘러 가야해.

용신: (작은 목소리로) 알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그동안 살려주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응?

용신: 아까 낮에 저희 부모님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오, 다행이구나. 채운이도 같이 가는 게냐?

채운: 네.

할아버지: (아쉬운 표정으로) 그래. 지금 바로 가는거야?

용신: (밝게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음식을 두고 갈 수는 없지요.

수저를 드는 용신. 흰 쌀 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는다. 김치찌개, 갯잎, 무말랭이 반찬들이 작은 상 가득 있다.

채운: (웃으며)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하거라.

채운: 네. (할아버지를 안으며) 할아버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 허허, 오냐. 또 놀러오너라. 어서 먹어. 든든히 먹고 가.

#122. 할아버지 집 앞마당

어린 갑돌을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멀리 못가는 거 이해해라. 다리가 좋지 않아서 말이다. 부모님 만나서 말씀 잘 드리고.

용신: 네. 나오지 마십시오. 이 앞이니 금방 갈 겁니다.

채운: 몸 건강히 계세요.

허리 깊이 숙여 인사하는 채운과 용신. 갑돌은 평평 울고 있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할아버지.

#123. 산 속

장승 앞 가마 한 대가 있다. 앞에 가마꾼 두 명이 있고, 금은사 석장승이 팔짱을 끼고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채운과 용신, 갑돌.

금은사 석장승: (셋을 발견하고) 음, 드디어 오셨구만.

채운: (갑돌에게) 이제 내가 처음 가마를 탔던 곳으로 가는 거야?

갑돌: (앞으로 나아가며 우울한 표정으로) 응. 가마 귀티.

용신을 지긋이 바라보는 채운. 용신은 무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다.

채운: (용신을 보지만 말은 갑돌에게) 다시 가마를 타고 이곳에 올 수는 없는 거 야?

갑돌: 가마는 단 한 번밖에 타지 못해. (울먹이며) 용신이는 가마 ‘청주 1895’를 타고 원래 있던 조선으로 돌아가겠지. 우리 모두 헤어지는 거야.

채운, 용신을 뻔히 쳐다본다. 가마 앞에 도착한 채운, 용신, 갑돌. 셋 모두 가마 안에 들어가 앉는다. 이 때 채운에게 다가오는 의장.

채운: (의장을 발견하고 웃으며) 고맙습니다.

의장: (웃으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채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의장: 물어 보거라.

채운: 왜 그 때 저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의장: ……너의 눈빛을 보았다.

채운: 네?

의장: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지. (웃으며) 너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구나. 고맙다.

채운: (눈물 참으며) 제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까요?

의장: 그럼. 할 수 있고말고.

채운: (웃으며) 이곳에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때, 출발하기 위해 움직이는 가마.

의장: 조심히 가거라.

채운: (인사하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채운의 옆에서 따라 인사하는 용신과 갑돌. 의장이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가마가 보름달을 사이를 통과하여 사라진다.

#124. 청주 묘지공원 귀터

귀터에 가마들이 도착한다. 가마가 내리고 귀신들이 흩어진다. 달이 밝다. 가마에서 채운, 용신, 갑돌 내린다. 내린 그 곳 앞에 ‘청주 1895’ 라고 쓰여 있는 가마가 있다.

가마꾼: 거기 조선양반, 어서 타.

용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갑돌: (눈물 글썽이며) 하,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하는구나.

채운: (용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조심해서 가.

용신: (눈물 억지로 참으며) 마지막인데 얼굴 좀 보여 주거라.

채운: (눈물 삼키며 얼굴을 마주보며 힘겹게 웃는다) 그동안 고마웠어.

용신: 채운이 너 또 누구 위한답시고 네가 다치지 마라.

채운: 응.

용신: 갑돌이 너도 괜히 까불고 다니지 말고.

갑돌: (울면서) 너야 말로 어디서 건방떨고 다니지 마.

용신: (눈물 삼키며) 알았다.

채운: (눈물이 나올까봐 입술 깨물며) 내 걱정 하지 말고 얼른 가.

가마꾼: 안 탈거요?

용신: (가마꾼 보며) 가요! (갑돌 보며) 갑돌아, 그동안 고마웠다. (채운 보며) 채 운아,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며) 이거.

채운: (종이를 받으며) 이게 뭐야?

용신: 내 가고 나서 펴 보거라. (가마에 뛰어 올라 타며) 그럼 난 가마.

채운: (맺혀있던 눈물 떨어지며) 잘 가. 건강해야해!

용신, 손을 흔든다.

갑돌: (엉엉울며) 잘 가!

채운과 갑돌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든다. 가마가 달 속으로 사라진다.

갑돌: 이제 나도 가 봐야 해.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났어.

채운: (눈물 닦으며) 응. 잘 가.

갑돌: (계속 울며) 고마웠어.

채운: (살짝 웃으며 갑돌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나도.

갑돌, 걷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혼자 남은 채운. 용신이 주고 간 종이를 펴 본다. 채운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채운, 눈물을 흘리며 씩씩하게 웃는다.

#125. 1895년 청주, 어느 양반 댁

용신: (예의 있는 말투로) 실례하오.

하인1: 쫓겨나자마자 바로 또 오네.

용신: 저번에는 내 예의가 없었소. 미안하오.

미인: (방문에서 목소리만) 잘 그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용신: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요. 내 조선 최고의 화가 채용신이오!

그 때 방문이 열리고, 미인 옆으로 돌아 앉아있다. 용신, 뭔가 익숙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얼굴을 가까이 보려고 한다. 그러자 미인이 고개를 돌려 용신을 바라본다. 미인의 얼굴이 채운의 얼굴과 똑같다.

용신: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 채, 채운이?

미인: (도도하게) 네?

용신: (정신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며) 아, 아니오.

미인, 수줍게 웃는다. 용신, 얼굴이 빨개진다.

잠시 후, 미인의 얼굴을 진지하게 그리는 용신. 앞마당에 있는 라일락 나무의 나뭇잎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린다.

#126. 2011년 왕십리 달동네

허름한 판자촌들이 붙어있는 달동네.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채운.

#127. 채운의 집

채운: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며) 다녀왔습니다.

아빠: 늦었구나.

채운: 네.

아빠: 얼른 들어가서 자라.

방으로 향하는 아빠, 채운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아빠의 뒷모습이 익숙하다. 채운이 엄마를 구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을 때 쯤, 집으로 들어갔던 남자의 뒷모습과 오버랩.

아빠의 뒷목에 화상자국이 있다. 채운, 갑자기 눈물이 차오른다. 그러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빠를 뒤에서 안는다. 아빠 깜짝 놀란다.

채운: 아빠.

아빠: (얼떨떨하게) 왜?

채운: 아니야.

보름달 C.U.

#128. 무학교, 채운의 학교. 등교 길

학교 등교하는 채운. 친구 현중이 달려와 채운에게 어깨동무를 한다.

현중: 꼭채운! 같이 가!

채운: (웃으며) 빨리 와.

현중: 뭐 좋은 일 있냐?

채운: 아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채운, 이 때 채운의 머리를 톡 때리고 도망가는 현중.

현중: (채운에게) 뭐해! 지각하고 싶냐?

채운: (머리를 만지며 웃다가) 거기서!



둘이 웃으면서 걸어가고, 바람이 불어온다. 교정에 낙엽이 물들여있다.

-끝-